

Zola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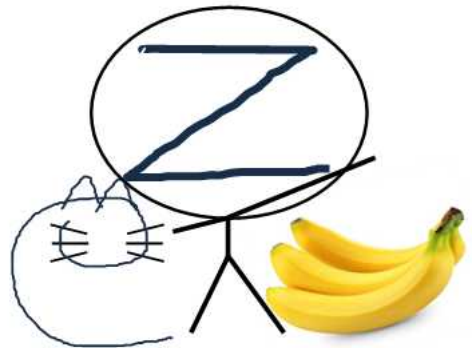
생활과 윤리

with Human

조킬러, 킬러, 톱수

주제

모임



Zola Guide

1. 개념 공부 또는 백지 복습 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든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참고할 것.
2. 백지 복습 후 전체적인 내용 보강 및 심화 학습용으로 활용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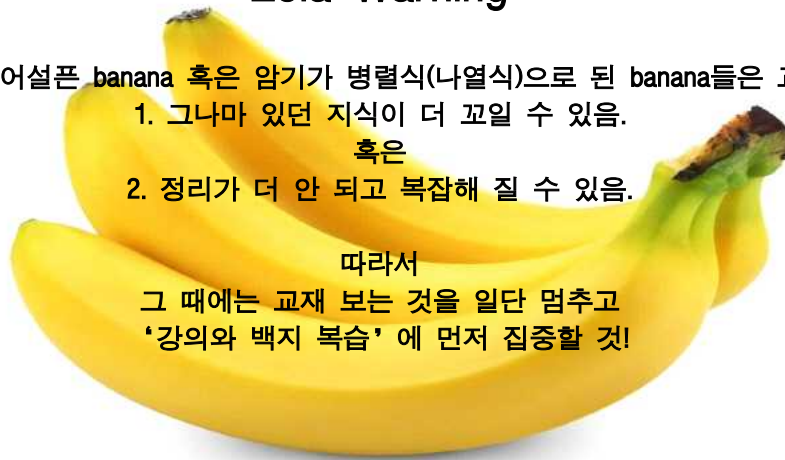
Zola Warning

지식(암기)이 어설픈 banana 혹은 암기가 병렬식(나열식)으로 된 banana들은 교재를 보면

1. 그나마 있던 지식이 더 꼬일 수 있음.
혹은
2. 정리가 더 안 되고 복잡해 질 수 있음.

따라서

그 때에는 교재 보는 것을 일단 멈추고
'강의와 백지 복습'에 먼저 집중할 것!



Zola Hope

언젠가 이 종이들은 폐기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이 교재가 여러분의 입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그리고 잘 하겠습니다.
열공+즐공=대박!!

교재 차례

-차례는 주제 순임. 주제에 따라 강의 및 자료 분량은 다름.

쪽수(시작~)	주제	수특·수완*
별도 제공	0-Orientation	
4~	1. 윤리학의 구분 - 준킬러	1강
9~	2.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윤리학 이론) - 준킬러+통수	2강
21~	3. 동양사상(자연관+죽음관) - 준킬러	3+8강
27~	4. 가족 관계 - 준킬러	6강
31~	5.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부어) - 준킬러	10강
36~	6. 인권 3세대론, 준법과 시민불복종 - 준킬러	11강
41~	7. 직업관(칼뱅, 베버, 마르크스) - 준킬러	12강
47~	8. 민족,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 준킬러	15강
49~	9. 평화론, 전쟁론 - 준킬러	15강
53~	10. 해외원조 - 준킬러	15강
56~	11. 환경 윤리 - 킬러	8강
70~	12. 분배 정의 - 킬러	10강
76~	13. 교정 정의 - 킬러	10강
84~	14. 생명윤리(장기이식·안락사·인간복제?) - 통수	4강
86~	15. 미래세대론 - 통수	8강
89~	16. 예술관 - 통수	13강
90~	17. 종교관(엘리아데) - 통수	13강
92~	18.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도덕적 추론) - 통수	1강
98~	zola amazing 답	

* 수특·수완은 단원 구분이 동일함.

1

윤리학의 구분

☞ Zola Guide 교과서가 개정되면서(16년부터) 기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이 이전보다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두 윤리학에 대한 교과서 내용이 부실하므로 ebs 수특/수완 자료와 문제를 잘 봐두어야 함.

1. 윤리학의 구분법

(1) 1안 - 평가원+ebs

- 메타 윤리
- 규범 윤리 : 이론(순수) 규범 윤리, 응용(실천) 규범 윤리
- 기술 윤리

(2) 2안 - 평가원+고1 도덕 지도서

- 메타 윤리 // 규범 윤리 // 실천 윤리 // 기술 윤리

(3) 기타 안 - 생략함

<비교> 윤리학의 분류에 대한 평가원 문제 확인

출처	제서문/자료
14-6-1	<p>수업 목표: 규범 윤리학을 ○○윤리학, □□ 윤리학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p> <hr/> <p>학습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윤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덕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정당화를 다룬다. 〈예〉 덕 윤리, 의무론적 윤리, 목적론적 윤리 등 2. □□ 윤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text"/> 〈예〉 생태 윤리, 생명 윤리, 정보 윤리 등
15-6-1	<p>○○ 모둠 발표</p> <p>☞ 윤리학의 구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nput type="text"/> A 〈예〉 의무론, 공리주의 등 2. <input type="text"/> B 〈예〉 생명 윤리, 환경 윤리 등 3. 메타 윤리학 ...(중략)... <p>☞ 심화 학습 문제</p> <p>A, B의 주요 탐구 과제는 무엇일까요?</p>

☞ Zola Guide

2. [교학사, 일부 수정] 윤리학의 구분 및 전개 과정

전통적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이었다. 전통적으로 윤리학자들은 인생에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목적’과 ‘법칙’으로 작용하는 도덕규범(道德規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규범에 기초하여 앞에서와 같은 실천적 물음에 답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리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윤리학자들은, 전통 윤리학이 인간의 현실적인 도덕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윤리학적 회의론*에 빠졌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앞에서 제기된 규범 윤리적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의 문제부터 먼저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은 1930년대에 이르러 도덕적 언어 내지 의미의 분석을 윤리학적 탐구의 본질로 하여야 한다는 이론 철학으로서의 메타 윤리학을 탄생시켰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다만 규범 윤리학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선과 악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에만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규범 윤리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조가 팽배하였다. 왜냐하면 메타 윤리학 자체는 인간의 삶을 안내하거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론 윤리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조는 더 나아가 규범 윤리학이 제시하는 도덕 이론을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에 적용하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응용 윤리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응용 윤리학은 윤리학의 본질이 ‘실천’에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 **윤리학적 회의론** : 인간의 마음과 관계없이 인식 가능한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관점과는 달리, 누구도 어떤 도덕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적 지식은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3. 현대 윤리학의 구분

(가) **규범 윤리학** : 인간의 바람직한 행위의 원리나 목적 및 법칙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다. 따라서 규범 윤리학의 관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의 준거가 무엇이며,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의 최고 기준이 무엇인지이다. 규범 윤리학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간의 도덕 생활을 체계화하고 한다. 결과적으로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도덕 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 또는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나) **메타 윤리학** : 규범 윤리학에서 제시하는 판단의 준거에 대해 논리적, 의미론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명제를 언어 분석적 방법에 의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덕 언어와 도덕적 개념들의 논리적·의미론적 분석에 학문적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메타 윤리학은 인간의 도덕적 생활과는 거리가 먼 가치중립적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메타 윤리학은 도덕 생활의 원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도덕적 판단 및 신념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 **응용 윤리학** : 윤리학을 바탕으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시도하는 학문이다. 응용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컨대 브로디(Brody, B., 미국의 생명 윤리학자이자 응용 윤리학자)는 ①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도덕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②우리에게 친숙한 일부 제도들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③과거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수정하거나 예외를 허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응용 윤리학은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데 기여한다.

4. 기술 윤리학

(1) [비상교육] 규범(normative) 윤리학과 기술(descriptive) 윤리학의 차이

‘보신탕을 먹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고 보는가?’ 등과 같은 설문 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을 조사하는 것은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 사회 과학의 탐구 활동이다. 이러한 탐구는 사람들이 어떤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을 실제로 지니고 있는지를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기술 윤리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이 과연 타당하고 옳은지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이론 윤리, 응용 윤리)이 할 일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응용 윤리적(규범 윤리학적) 탐구에서 기술 윤리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윤리 의식이나 가치관은 응용 윤리적 탐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 [17 ebs 수특 재인용,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사회적인 차원에서 과학적 탐구를 통해 현실적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추구하고 또 얻을 수 있다. 인류학자, 역사학자 그리고 사회심리학자들은 여러 다른 사회와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률을 탐구해 왔다. …(중략)…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이러한 경험적 지식은 현실적 도덕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며 설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편의상 현실적 도덕에 관한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기술 윤리학(descriptive ethics)이라고 부를 수 있다.

(3) [15 ebs 수특/18 ebs 수특 재인용]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기술 윤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사회 집단의 구체적인 도덕적 관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도덕적 관행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옷을 입는지에 관한 사실들과 같은 문화적 ‘사실’로 본다. 이 점에서 기술 윤리학은 윤리 이론으로서의 규범 윤리학이나 메타 윤리학과 다르다.

5. [교학사]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

전통적 윤리는 크게 ‘목적론적 윤리’(teleological ethics)와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로 나누어진다. 목적론적 윤리는,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가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의 ‘결과의 좋음’과 관련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 또는 우주 전체에, 우리가 그 실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객관적인 목적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목적론적 윤리가 대답하여야 할 최초의 근본 문제는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이다. 그는 그것을 ‘행복’으로 보았다. 이런 그의 윤리설은 덕 윤리의 전형이 되었다. 한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촉진하도록 행위해야 한다.’라는 공리주의도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에 의해 인간 행동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목적론적 윤리로 볼 수 있다.

의무론적 윤리는, 도덕적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동의 ‘결과의 좋음’보다는 ‘형식적인 행위의 규칙’과 관련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인생이 힘써 도달해야 할 목적이 따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대신,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분간함에 표준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이 주어져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타당한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고 믿었다. 어느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도덕 법칙을 적용함으로써 간단히 판단된다. 따라서 최초의 근본 문제는 ‘시대와 지역의 차이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행위의 법칙인 도덕 법칙이 무엇인가?’이다.

- 김태길, “윤리학”

6. [교사용 지도서, 미래엔] 결과주의 vs. 동기주의

결과주의는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으로서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행위란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것이 옳고 그른가는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만 달려 있다고 본다. 특정한 유형의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한 행위의 도덕적 성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목적(결과)이 수단(행위)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게 된다.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어떤 행위가 가능한 다른 대안적 행위들보다 영향을 받을 모든 이들을 고려해서 보다 큰 욕구의 충족을 가져올 경우 그 행위가 옳은 것으로 판정하는 공리주의는 대표적인 결과주의이다.

동기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도덕적 규칙으로서의 정당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칸트(Kant, I)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의무로서 행해야 할 정언적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칸트 철학에서 이성(이성)은 궁극적으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인데 그 적용에 있어서 사변(이론)이성과 실천(도덕)이성으로 구분된다. 사변이성은 인간의 인식을 지향하는 것이며 실천이성은 인간의 도덕적 선택에 관여하는 것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는 그것이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선의지에 근거한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당위이다. 선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행위는 항상 선의지를 전제해야 한다. 인간의 도덕적 가치는 바로 선의지를 따라야 할 의무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것은 실천 이성이 인간의 의지에 대해 어떠한 일을 명령하는 정언명법의 형식을 통해 규정된다. 이 명령은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명령이 동기가 되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동기주의에 해당한다.

☞ Zola Guide 생윤에서 결과주의와 동기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개념은 중요하게 활용된다. 결과주의-공리주의, 동기주의-의무론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응용 윤리학에서 활용되는 윤리 이론] 공리주의-의무론-덕 윤리

오늘날 응용 윤리학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규범윤리 이론은 역시 공리주의와 의무론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론은 실제 응용 윤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종종 충돌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의 많은 문제에서 도덕적 의무와 결과적 이익이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행동이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될 경우, 그런 행동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지기 때문이다. 생명윤리의 예를 든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큰 피해가 예방될 수 있다고 여겨질 경우, 그 환자의 동의 없이 그렇게 해도 좋은가?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병의 악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여겨질 경우, 그렇게 해도 좋은가? 이러한 문제들은 위와 같은 행동들(예컨대 동의 없는 정보공개,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해도 좋다’는, 아니 ‘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의 일반적인 갈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의무론과 결과주의 사이의 전형적인 갈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덕 윤리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우선 위와 같은 공리주의와 의무론 사이의 딜레마를 피해갈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대를 모았기 때문이다. 또한 윤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 행위자들(예컨대 전문가, 기술자, 연구원 등)의 인성(character)에 대해 새로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규칙을 가르치는 일보다 그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일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응용 윤리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규칙들도 금세 낡은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박찬구, “생활 속의 응용 윤리”

2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윤리학 이론)

☞ Zola Guide 문제 유형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윤리와 사상 문제처럼 사상가의 지식을 직접 묻는 유형이다. 사상가 1명에 대한 지식일 수도 있고, 2명 이상의 사상가 지식을 비교하는 것일 수도 있다. 1학기 프린트도 함께 공부해 두길 바란다.

(2) 실천 윤리 문제 유형이다. 특정 사상가의 입장을 특정 상황에 응용(적용)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이 생활과 윤리 과목에 맞는 유형이지만 보통 난이도가 높지 않다.

난이도 조절용으로 (1)의 유형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공부해 두어야 한다. 16년부터 교과서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출을 보면 문제도 많지 않고 난이도도 높지 않다. 그래서 방심하기 쉽다.

8. 개관 및 이론적 배경(교사용 지도서)

공리주의는 유용성(有用性, utility)의 원리에 기초하여 체계화된 윤리 사상이다.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나 ‘행위의 규칙’이 더 좋은 결과를 성취하는 데 유용하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본다. 여기서 ‘좋은 결과’는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쾌락이나 행복을 인생에서의 유일한 본래적 가치로 본다. 따라서 공리주의자에게 있어서 쾌락이나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의무론은 도덕의 근본 원리를 공리주의와 같이 행복 등의 목적에 두지 않고 의무에 두는 학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의무론에 의하면,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도덕의 표준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덕의 표준을 따르되, 그것을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다. …(중략)… 칸트의 의무 윤리는, 행위자가 선의지를 가지고 의무감에서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행위만을 도덕적이라고 본다. 선의지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마음이나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 옳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다. 선의지란 옳은 행동을 오직 그것이 옳다는 이유만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유 의지이다. 칸트는 선의지를 본래적 선으로,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선으로 보았다. 이러한 선의지는 행위자가 도덕 법칙을 존경한 나머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며 의무감에서 도덕 법칙을 따르도록 작용하는 도덕적 동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고대의 덕 윤리에서 덕(德, arete)은 사물의 ‘탁월한 기능’과 관련된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이성적 기능으로 보았다.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이성적 기능을 최고로 개발하여 그것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대의 덕 윤리는 근대 초기에 이르러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등장하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 이후에 의무와 원리에 따른 행위 중심의 근대 윤리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성품 내지 인격을 중시하는 행위자 중심의 현대의 덕 윤리로 새롭게 부활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덕 윤리는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현대 윤리에서 책임 윤리의 개념은 베버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는 도덕적 의무와의 일치 여부에 따라 도덕 판단을 하는 의무 윤리를 비판하면서 행위의 결과와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에 기초해서 도덕 판단을 하는 책임 윤리를 주장했다. 요나스도 인간 중심적인 전통 윤리를 비판하면서 생태 중심적 입장에서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 윤리를 주장했다.

담론 윤리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덕규범의 정당화에 관한 윤리 이론이다. 담론 윤리의 대표자 격인 하버마스는 도덕적 통찰력과 규범적 타당성 영역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내포된 도덕적 의미를 설명하여 도덕규범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그는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내포된 보편적 의무를 환기함으로써 도덕성에 따른 의무와 보편성을 강조한다.

☞ Zola Guide 배려윤리가 빠져 있음.

[Zola 필독] 주요 사상가 제시문

출처 : 윤리와 사상 교과서 및 지도서, 생활과 윤리 교과서 및 지도서, 평가원, ebs(탐스런, 수특/수완), 주요 원전

9. 벤담

(1)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다.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적해 준다. 한편으로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의 사슬이 그것들의 옥좌에 걸려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한다. 우리가 그 지배를 뿌리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조력은 단지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증하거나 확증하는 데 기여할 뿐이다.

(2) 공리의 원리란, 모든 행위에 대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혹은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좋다거나 혹은 나쁘다고 평가하는 원리이다. 공리란 어떤 대상 속의 성질로서 그것이 관련된 당사자에게 이익·편의·쾌락·선·행복을 가져다주고 손해·고통·악·불행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3) 공리를 계산하는 7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강력성, ② 지속성, ③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④ 근접성, ⑤ 다산성(즉 그것이 동일한 종류의 감각, 즉 쾌락인 경우에는 기타의 모든 쾌락, 고통인 경우에는 기타의 모든 고통을 수반할 가능성), ⑥ 순수성(즉 그것이 반대의 종류의 감각, 즉 쾌락인 경우에는 모든 고통, 고통인 경우에는 모든 쾌락을 수반하지 않을 가능성), ⑦ 그 범위(즉 그것이 미치는, 또는 [바꿔 말하자면]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

10. 밀

(1)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일을 헤아릴 때에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측정할 때에는 양에만 의거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2) 만족한 돼지기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인 편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이기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인 편이 더 낫다. 그리고 만일 바보나 돼지가 이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들이 이 문제에 있어 오직 그들 자신의 측면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들과 비교되는 상대방, 즉 사람이거나 소크라테스는 양쪽 측면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3)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선택한 쾌락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이다. 더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려면 열등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낮은 수준의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11. [교학사] 공리주의와 다수결 원칙의 관계

공리주의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전제하는 총량 이론을 따른다. 이러한 공리주의는 구성원 다수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다수결 원칙에 따라 입안·실행되는 정책의 정당화 논리로 작용한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은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배려와 존중을 침해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평등주의를 거부하고 소수의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여 다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마저도 선한 행위라고 본다. 이처럼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 결정 원리로 작용하는 다수결 원칙은 공리주의적 사고에 근거한다.

12. [미래엔+비상교육] 자연법 윤리

의무론적 접근의 또 다른 예로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둔 자연법 윤리를 들 수 있다. 정언 명법을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본 칸트와 달리 자연법 윤리는 인간 본성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본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을 의미한다. 자연법 윤리의 기초를 제시한 스토아학파는 인간은 누구나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연법 윤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라’라는 핵심 명제를 강조한다. 자연법 윤리에 따르면,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행위는 옳지만 그것을 어기는 행위는 그르다. 일반적으로 말해 ‘자연스러운 행위’는 옳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행위’는 옳지 않다. 이처럼 자연법 윤리에서는 어떤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어긋나는지를 검토한다.

그렇다면 자연의 질서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으로서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을 제시하였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자신과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과 이성적 존재로서 진리를 파악하려는 성향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는 자연적 성향이라는 것이다. 자연법 윤리는 이러한 성향으로부터 생명의 불가침성 및 존엄성, 인간 양심의 자유, 만민 평등 등의 자연법적 권리를 도출한다.

이처럼 자연법 윤리설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의무를 규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가 법을 만들 때에 기본적인 인권인 자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 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13. 자연법 윤리 - 스토아 학파

☞ Zola Guide 아래 글들은 자연법 윤리 중에서 스토아 학파의 글들임. 자연법 윤리의 특징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활용하면 됨.

(1) 스토아학파는 온갖 감정과 욕망 등의 정념이 제거된 상태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설정했다. 이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연, 즉 이성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자연이 이성의 질서에 맞추어 각자에게 부여한 본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어떤 현명한 사람도 결코 고독하게 혼자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상 사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행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스토아학파에서는 인류에 대한 동료 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시민주의 사상을 전개하였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교과서)

(2) 에픽테토스가 노예였던 시절 하루는 주인이 그에게 몹시 화가 나서 그의 팔을 비틀기 시작하였다. 주인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의 팔을 비틀었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마침내 평온하게 “주인님, 그렇게 계속하신다면 저의 팔이 부러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주인의 화를 더욱 돋우게 되었고 결국 주인은 실제로 에픽테토스의 팔을 부러뜨려 버렸다. 이 순간에도 그는 평온함을 잃지 않고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육체적 고통의 느낌이나 육체의 손상에 대한 스토아주의적인 부동심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의 태도는 평소 “당신이 바라는 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당신의 바람을 맞추도록 해라. 그러면 당신은 평화를 얻을 것이다.”라는 말과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3) 전 대지와 온 하늘이 신의 존재이다. 신은 구정물 속에도, 회충 속에도, 범죄자 속에도 있다. 자연은 이렇게 살아 있는 전체이며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성을 갖춘 생명체이다. 이성이 자연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있기에 자연 자체가 이성적이고 영혼적이며 이해 가능한 것이다. 즉, 자연은 그 자체가 신적인 것이다.(에픽테토스, “담화록”)

(4)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 소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이 소에게 일어날 수 없고, 포도나무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이 포도나무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자신의 숙명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연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가져다 주지 않는다.(아우렐리우스, “명상록”)

14. 자연법 - 아퀴나스의 자연법

자연법이란 인간의 합리적인 본성에 의존하는 법으로서,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즉 인간이 자신에 내재하는 신의 빛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에 유래하는 법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법의 명령은 자연적 성향의 질서에 상응하는 계층적인 질서로 설정된다. 제1의 자연 성향은 인간이 다른 모든 실체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기 보존 본능이요, 제2의 자연 성향은 동물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성향, 즉 성욕과 종족 보존 본능이며, 제3의 자연 성향은 인간의 합리적인 본성에 관계되는 것으로 인간만이 갖는 본능인데 그것은 신에 관한 진리를 알려 하고 다른 인간과 더불어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이다.

-사하키안,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17 ebs 수특 재인용)

1) [연습, 윤리 기출 일부] 예화에서 노예의 태도에 나타나는 사상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어느 날 노예에게 몹시 화가 난 주인이 그의 팔을 비틀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예는 “주인님, 마음의 평정을 찾으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신다면 저의 팔이 부러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더 화가 난 주인이 결국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이 순간에도 그는 평온함을 잃지 않고 “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는 시종일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평온한 정신의 태도를 보였다.

<보기>

- ㄱ. 죽음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 ㄴ. 오로지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만이 자유롭다고 본다.
- ㄷ.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연습, 윤리 기출 일부] 다음 내용에 부합하는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 …… 비천한 물욕(物慾)을 채워 줄 소득에만 / 눈이 어두워 버린 채, / 마침내 명성과 감미로운 욕정의 / 씨앗만을 탐내는가 하면 / 또한 하찮은 욕망만을 충족시키려고 / 애태울 뿐이라네.
- 우주에는 만물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이성이 있고, 인간의 본성에도 이러한 이성이 있으므로, 감각이나 욕망 대신에 이성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해야 한다.

<보기>

- ㄱ.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삶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ㄴ.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모두 평등하다.
- ㄷ. 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다.
- ㄹ.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15. 칸트

(1) 경험적 원리는 언제나 도덕 법칙의 기초가 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만약 도덕 법칙의 근거가 인간 본성 속의 어떤 성향이나 그가 처한 우연적 환경에서 도출된다면 도덕 법칙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차별없이 타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이며 필연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보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3)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의 정신의 재능이라 불릴 수 있는 것들, 또 용기, 결단력, 끈기 같은 기질상의 속성들도 틀림없이 여러 가지 점에서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성품이라 부르는 이러한 천부적 재능이나 기질조차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못하다면, 지극히 악하고 또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4)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게 있어서 도덕적 필연성은 강요이자 강제이다.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모든 행위는 의무로 생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덕 법칙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신성(神性)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는 의무의 법칙이다.

(5) 정언명령(定言命命)은 조건이 없는 명령이다. 가언(假言)명령, 즉 조건적 명령이 '내가 행복을 얻으려면 이렇게 행위하여라.'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행위를 명령하는 것인데 반하여, 단적으로 '무엇 무엇을 하여라.'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들어맞는 명령을 이른다.

(6) 인간은 그리고 모든 이성적 존재 일반은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며 단지 이런저런 의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있어, 그 행위가 자신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든 간에, 항상 동시에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7) 자연의 사물은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만이 원리에 따라 행위를 하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의지란 이성이 경향성에 독립해서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실천 이성을 통하여 "그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하여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네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그렇게 행위하라."라는 정언명령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엇이 도덕적 의무가 되는지를 알 수 있다.

[미래엔, 윤사] 칸트 정언 명령의 절차

행위의 준칙을 세워라 → 준칙을 보편화하라! → 성공적으로 보편화된 준칙을 받아들여라! 성공적이지 않은 준칙은 거부하라!

☞ Zola Guide 보편화된 준칙이 곧 법칙임. 결국 칸트는 '법칙'을 따르는 것이 핵심임.

(8)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를 구별하는 것이 양자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한 실천 이성이 바라는 것은 오직 의무가 문제일 때에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의무에 맞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9) 빛을 진 사람이, 빛을 안 갠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두려워 빛을 갠다고 하면, 그의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빛을 갠 것은 신중한 타산에서 비롯된 행위일 뿐, 의무 의식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빛을 갠 것이 의무임을 인식하고 빛을 갠 행동을 했을 때만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16. 칸트 윤리

(1) [16 ebs 수특] 칸트 윤리학의 형식주의

칸트의 윤리는 일체의 경험적 내용을 배제하고 보편화 가능한 순수한 윤리의 형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형식주의의 특징을 갖는다. 형식주의란 칸트가 도덕적 판단의 보편타당성을 순수한 형식으로서의 도덕 법칙에서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2) [미래엔] 칸트의 의무와 도덕적 가치

칸트는 우연히 경향성*과 의무가 일치하는 경우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와 무관하게 단지 의무와 일치하게 행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은 우리의 의무로 요구되는 바이지만 단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경향성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이때 우리의 행위는 어떤 도덕적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란 오직 우리가 의무로부터 행위할 경우에만, 즉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할 경우에만 드러난다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깨달는 것은 곧 의무가 그런 행위를 하는 동기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에링턴, "서양 윤리학사"

* 경향성 :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성향

3)[연습, 지학사, 윤사] 갑~정 중에서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샘 :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걸인을 보았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움을 주었어. 행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갑 : 그냥 지나치면 주위 사람들이 그를 매정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요.

을 : 돕지 않고 지나가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병 : 불쌍해서요.

정 : 걸인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의무니까요.

4)[연습, 18 수능, 윤사] 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

갑: 행복의 원리가 준칙(準則)을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결코 의지의 법칙으로 쓰일 준칙을 제공할 수는 없다. 행복에 대한 인식은 경험 자료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규칙을 줄 수가 없다.

① 보편화할 수 있는 준칙은 도덕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의무에 맞는 모든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17. 아리스토텔레스

(1) 덕이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이다. 그런데 덕에는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품성적인) 덕 두 종류가 있다. 지적인 덕은 대체로 교육에 의해 생기고 발전하며, 많은 경험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반면에 도덕적인 덕은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도덕적인 덕은 본성에 의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인 덕은 본성과 반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본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습관을 통해 완전하게 얻는 것이다. 즉, 도덕적인 덕은 실천해 보고 나서 비로소 배워 알게 된다. 그러나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2) 절제와 용기, 그리고 다른 덕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무슨 일이든 회피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떤 자리도 지켜 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무슨 일이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즐거움에 탐닉하면서 어떤 것도 삼가지 않는 사람은 무절제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즐거움이라면 전부 회피하는 사람은 촛뜨기들처럼 일종의 목적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제와 용기는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비상교육]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인 덕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 즉 중용(中庸)이라고 주장하였다. 용기의 덕은 만용과 비겁의 중용이며, 친절의 덕은 아첨과 통명의 중용이다. 중용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 경험이 많고 상황 판단력이 있는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중용을 발견할 수 있다. 실천적 지혜는 특정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판단 준거와 특수 상황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18. 매킨타이어

(1) 덕 교육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선이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결합되어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선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나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과 당신이 당신의 선을 추구하는 방식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선이 특별히 나에게만 속한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만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한 것들은 사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의 기본적 형식인 우애를 공유된 선이라는 의미에서 정의하였다.

(2)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아니면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우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기정사실이며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엔, 윤사]

현대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다. 우선 덕을 습관적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성품의 훌륭함이자 훈련된 행동 성향으로 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도덕적 모범을 본받으려는 지속적 노력을 통해 덕이 길러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덕을 행동하려는 성향뿐만 아니라 느끼는 성향으로 봄으로써 덕의 함양에 있어 도덕적 감정 계발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보편적 도덕 원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를 유연하게 파악하는 실천적 지혜를 강조한다.

하지만 현대 덕 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대 덕 윤리학자인 매킨타이어는 여성이 탁월하게 기능할 때 덕이 형성된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사회적 맥락과 전통과의 관련성 속에서 덕을 설명하려고 한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속적인 삶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19. 길리건

(1) 여성들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살핌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관점들까지 포함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여성들의 판단이 일견 산만하고 혼돈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장점, 즉 그들이 인간관계와 의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과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여성들이 판단 내리기를 꺼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성향 때문에 여성의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2)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여성들의 삶으로부터 발달 이론을 구성해 나간다면 프로이트, 피아제, 콜버그의 관점과는 다른 도덕관이 형성될 것이며, 발달도 달리 묘사될 것이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도덕 문제들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는 권리의 충돌이 아니라 책임의 충돌을 들 것이며,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맥락적이며 서사적인 사고방식을 들 것이다. 공정성으로서의 도덕관이 권리와 규칙에 대한 이해를 도덕 발달의 중심에 두는 것처럼, 보살핌과 관련된 도덕관은 책임과 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덕 발달의 중심에 둘 것이다.

[참고] 남성 중심의 윤리의 예

- 칸트 - 네 의지의 격률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롤스 - 나의 목적은 이를테면 로크, 루소, 그리고 칸트에게서 흔히 알려져 있는 사회 계약의 이론을 고도로 추상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정의관을 제시하는 일이다.
- 콜버그 - 도덕성은 도덕적 추론 또는 판단 능력이다. 도덕성의 발달이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도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것이다.

[비상교육] 콜버그의 도덕 발달 6단계

도덕 발달 이론가인 콜버그는 개인의 도덕성은 단계별로 6단계까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도덕적인 문제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때,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도덕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

1단계에서는 주로 사고하는 학생은 처벌이나 신체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선생님한테 들킬 위험성이 없거나 구속될 위험성이 없으면, 남에게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1단계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학생의 도덕성은 아직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2단계 학생은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며(예 : 폭력을 쓰는 것은 옳지 않아. 폭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학생기록부에 기록되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불리해지니까. 기록이 남으면 취직에 어려울 수도 있지.), 3단계 학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4단계 학생은 법을 준수하고, 기존의 사회 질서를 존중한다. 자율적인 인간이 되려면, 인권이나 공리주의 원리(5단계)에 따르거나, 보편적인 정의 원리(6단계)에 따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 Zola Guide 내용적으로는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에 해당함. 참고로 콜버그의 연구는 기술 윤리학의 예가 될 수 있음. 학생들의 윤리 의식을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임.

20. 나딩스

(1) 배려 윤리는 보편화 가능성-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누구라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보편화 가능성은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 있는지와 같은 문제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전혀 관계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2) 배려 윤리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연적 배려에 의존한다. 자연적 배려 상태는 배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려를 받는 사람에게도 힘을 주는 관계로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예측된다. 자연적 배려는 윤리적 배려의 근원이자 최종 귀착점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녀 관계를 배려의 원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비상 교육]

나딩스는 배려적 관계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배려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배려자의 필요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통해 피배려자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공감하여, 그의 필요 욕구를 충족해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려적 행동을 실천한다. 배려자는 피배려자의 필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피배려자가 배려 행동을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배려적 관계가 완성된다. 피배려자가 배려자의 배려 행동을 거부한다면 이는 배려가 아니며, 결국 둘 사이의 배려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 배려 윤리와 덕 윤리의 구분(ebs 탐스런)

* 배려 윤리가 덕 윤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배려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덕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들 나름의 인격이나 덕에만 집중한다면, 배려의 수혜자 혹은 피배려자들은 소외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배려의 수혜자들은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참을성 있고, 관대하고, 쾌활한 것과 같은 덕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배려의 관계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 배려 윤리는 덕으로서의 배려보다는 배려하는 관계 자체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 위의 비상 교육 자료가 덕 윤리보다 배려 윤리가 '관계'를 더 중시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21. 베버

모든 행위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원칙, 즉 심정 윤리나 책임 윤리에 따라서 지향될 수 있다. 심정 윤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심정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선한 의지이다. 심정 윤리는 행위의 결과를 신에게만 돌리는 신앙인의 태도나 자본주의 태도에 몰두하는 노동조합 활동가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책임 윤리는 결과에 철저히 책임을 지려고 하는 행동 원리이다. 그리하여 책임 윤리를 따르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런데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는 절대적으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정치에의 소명'이 부여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이 완성된다. -“직업으로서의 정치”

☞ Zola Guide 베버의 책임 윤리는 '직업 윤리(공직자 윤리)'와 '과학자의 책임' 등에도 출제 가능함. 윤리의 핵심이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천 윤리의 기본 용어 정도로 받아들여도 됨. 즉, 사상가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책임 윤리가 전달하는 윤리적 의의(함의, 시사점)에 관심을 둘 것.

22. 요나스

(1)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고, 경제를 통해 끊임없는 충동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을 요청한다. 이 책은 과학 기술의 약속이 위협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또는 적어도 과학 기술이 윤리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출발점으로 한다.

(2) 호혜성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념에 따르면 나의 의무는 다른 사람의 권리이며, 또 다른 사람의 권리는 나의 권리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념은 우리의 목적(책임의 원칙)에 대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이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근거로 권리를 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탐구하는 윤리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책임 윤리는 권리와 호혜성의 모든 이념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미래는 나의 권리를 존중하는가?'와 같은 물음은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4)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복돋우는 공포가 바로 책임의 본질적 속성이며, 우리가 뜻하는 공포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것은 또한 책임의 대상에 대한 공포이기도 하다. …(중략)… 책임은 의무로 인정된, 다른 존재에 대한 염려이며, 이 염려는 그 존재의 민감성이 위협받을 경우 근심이 되어 버린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시작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원초적 질문 속에 이 공포는 이미 하나의 잠재력으로 내포되어 있다. 즉 내가 그것을 내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대답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책임은 더욱더 밝게 그려진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신의 평안과 고통과는 상관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방식에 있어서 낮설수록,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더 많은 천리안적 상상력과 예민한 감수성을 그것을 위해 동원해야만 한다. 즉 공포를 탐지하는 발견술이 요청되는 것이다. 공포를 탐지하는 발견술은 새로운 대상물을 찾아내어 공포에게 서술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일깨워진 특별한 도덕적 관심을 알게 해준다.

(5)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과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생명에게 이러한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 지향적인 책임의 윤리는 이미 행해진 것에 대한 보상의 책임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배려와 예방의 책임, 즉 우리에게 행위할 것을 요구하는 책임 대상에 대한 배려와 그 대상이 처할 수 있는 사태를 예방하는 책임을 요구한다.

(6) 생태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다. 이러한 책임은 현세대는 물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와 자연 그 자체를 위한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와의 역사적 연대성을 토대로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도 현세대가 누리는 것만큼이나 생명력 있는 자연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연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과적 책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환경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는 미래의 부정적 결과를 예견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7)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정언) 명법은 대충 다음과 같을 수 있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부정적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인간 생명의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 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서술할 수 있다. “지상에서의 인류의 무한한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위협하지 마라.” 다시 긍정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면 다음과 같다. “미래의 인간의 불가침성을 너의 의욕의 동반 대상으로서 현재의 선택에 포함하라.”

(8) 인류가 이제까지 실행한 것과 앞으로 실행할 것에 의해 마땅히 실존해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인류의 실존은 항상 우선적이다. 실존을 통해 자기 규제의 가능성과 항상 초월적인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아야 한다. 우주적 책임으로서의 이 가능성의 보존은 바로 실존에의 의무를 의미한다. 인류의 실존은 간단하게 인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가 잘 산다는 것은 다음의 명령이다. ‘인류가 존재한다.’라는 적나라한 존재적인 사실은 이 점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인류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라는 존재론적 명령이 된다.

23. 하버마스

- (1) ①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④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문제시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람은 모든 주장을 담론에 끌어들이 수 있다.
- ③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 희망,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③ 어떤 화자도 담론의 내부나 외부에서 행사되는 어떤 강제력에 의해 ①과 ②에서 확정된 권리를 이용하는 데 방해받을 수 없다.

* 담론 :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성적 의사소통 행위로 주로 토론의 형태로 이루어짐.

(2)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가할 자격이 있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3)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 경향신문(탐스런 ebs 재인용)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왜곡되고 억압된 현대인들의 영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찾는 데 한 평생을 바친 독일의 사회철학자다. 그가 찾아낸 해방의 비결은 의사소통, 즉 대화다. 그는 사라진 규범과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줄 가능성을 의사소통이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의사소통에는 참여자들이 누구나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규범이 있다. 의사소통이 성공하려면 말하는 이는 참되고, 옳고, 진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참됨(진리성), 옳음(정당성), 진실성, 이해가능성은 각각 인지적-기술(記述)적 합리성, 도덕적-실천적 합리성, 심미적-표현적 합리성, 문법적-의미론적 합리성을 생명으로 삼는 과학, 도덕이나 법, 예술, 언어가 추구하는 규범이다. 이 네 가지 규범들이 온전히 지켜지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상황이 이상적인 의사소통상황이고 이상적인 사회의 기초가 된다.

돈의 힘으로 조직된 경제체계와 권력의 힘으로 조직된 정치체계는 현대인들을 돈과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 의사소통상황을 왜곡시켰다. 현대인들은 돈이나 권력의 체계 속에 갇혀 그 힘에 억눌려 거짓말이나 그릇된 말이나 진실하지 못한 말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 하지만 왜곡된 의사소통상황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 또한 의사소통에 있다. 공론의 장에서 해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반성을 통해 왜곡된 모습을 자각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또는 그것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을 통해 왜곡된 의사소통상황으로부터 해방되어 제대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러한 자유만이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다.

** Zola 보충 설명-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조건

① 참됨(진리성) : 참이며, 진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ex) Zola의 강의 교재 하나로 생윤뿐만 아니라 국수영까지 만점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짓’임!

② 옳음(정당성) : 사회적으로 정당한 규범에 근거해야 한다.

→ ex) Zola의 강의 교재는 정**, 임**, 이**, 강**의 강의 교재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면 정당하지 못함.

③ 진실성 : 자신이 말한 의도를 믿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ex) Zola에게 바나나 좀 그만 괴롭히라는 학생들의 항의에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얼마나 진실되게 받아들여질런지……

④ 이해가능성 :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ex) Zola의 생윤 교재는 4종 교과서와 기술을 우주적 관점에서 연기(緣起)의 법칙에 따라 그로데스크하면 서도 성현(聖顯)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한 것임! → 뭘 말인지 내가 써놓고도 모르겠음....ㅏㅏ

3-1

동양의 자연관

☞ Zola Guide 교과서가 바뀌면서 분량이 줄었다. ebs에서는 내용과 문제 모두 분량이 많이 줄었고, 평가원에서는 개정 후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방심하기 쉬운 주제이다. banana처럼 안심(?)하고 넘어갈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몫(?)이다.

24. 유학(유가) 사상의 핵심 및 제시문

[천재교육] 유학에서 자연의 생명력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만물의 근원이자 원리인 천(天)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인간에게 사랑(仁)을 베푸는 것을 올바른 삶으로 보았다.

-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인간은 그 마음을 본받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教)라 한다.
- 하늘이 못 사람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이 있도다. 사람이 마음에 항상 순선(純善)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이 아름다운 덕성을 좋아한다.
-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한다. 나는 그 가운데 혼연히 있다. 그러므로 천지에 가득 찬 기운은 나의 몸이요, 천지를 운용하는 원리는 나의 본성이 된다. 사람들과 나는 한 배에서 나왔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다.

25. 도가 사상의 핵심 및 제시문

[천재교육] 도가에서는 자연을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 바라본다. 자연이 무위의 원리로 운행하듯 인간 또한 자연에 조작과 통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물처럼 사는 것이 으뜸 되는 선이다(上善若水(상선약수)).”라는 말에서 자연의 질서를 엿볼 수 있다.

-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마치 짚으로 만든 개처럼 취급한다.
-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 오리 다리가 비록 짧지만 이어주면 걱정할 것이요, 학의 다리가 비록 길지만 끊어 주면 슬퍼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긴 것은 끊을 것이 아니요 짧은 것은 이을 것이 아니다. 천성대로 두면 근심은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26. 불교 사상의 핵심 및 제시문

[천재교육]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연기설(緣起說)을 주장한다. “저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을 때 저것 또한 없다.”라는 말은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표현한다.

-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 세 개 갈대가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서로 의지하여야 서게 된다.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지 못하고, 둘을 버려도 하나는 서지 못한다.
- 인드라 하늘에는 진주 그물이 있고, 그 그물은 잘 정돈되어 있어 만일 사람이 어떤 한 진주를 주시한다면 그것 속에 다른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한 티끌의 먼지 입자에도 무수히 많은 붓다들이 존재한다.

☞ Zola Guide 유가와 도가의 문장 비교

(1) 독해 point 1. 하늘과 도의 관계

제시문	독해 point
[유가]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教)라 한다.	하늘>도
[도가]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도>하늘

(2) 독해 point 2. 하늘의 역할·의미(도가는 anti 유가)

제시문	독해 point
[유가] • 천지는 만물을 낳는 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 하늘이 명(命)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 하늘이 못 사람을 내시니 • 하늘을 아버지라 하고,	*하늘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권능(권력이나 능력)을 가진 존재임 *하늘[仁]이 다른 존재보다 우위에 있음
[도가] •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유가의 하늘은 어짊[仁]. 도가의 하늘은 유가적 성격은 없음

27. 도가 제시문 보충

(1)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아주 이롭게 해 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못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땅처럼 낮은 곳에 거하고, 마음은 연못처럼 고요하며, 더불어 사귀어 인자하고, 말이 믿음직하고 바르므로 잘 다스려지고, 일에 능력이 있으며, 움직임에 때를 맞춘다. 오직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2) 기(氣)를 전일(專一)하게 하고 지극히 부드럽게 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 Zola Guide 유가면 어른이 되라고 할 것임. 어린아이는 아직 철들지 않은 존재이니까. 유가가 어른이 되라고 하니까 도가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때묻지 않은 존재(자연적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임.

(3)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한다. 스스로 뽐내는 자는 공이 없고, 스스로 자만하는 자는 으뜸이 될 수 없다. 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같은 행위에 불과하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 Zola Guide 자연스럽지 못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시문임.

(4) 어떤 물건이 혼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의 생성보다 앞서 있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형체도 없지만 홀로 존재하며 변화하지 않고 모든 것에 두루 행하여지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모체(母體)라 할 만한 것이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도(道)라 이름지었고 역지로 그것을 대(大)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 Zola Guide 밑줄 친 부분이 핵심. 유가면 하늘보다 앞서 있는 무언가가 없음!

(5) 도(道)를 잃게 되자 덕(德)이 있게 되었고, 덕이 없어지자 인(仁)이 생겨났으며, 인이 없어지자 의(義)가 생겨났고, 의가 없어지자 예(禮)가 생겨났다. 무릇 예란 충신이 희박해지므로 해서 나타났으니 환란의 시초이다.

☞ Zola Guide 유가면 ‘인’ 앞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없음. 인=하늘이기 때문. 밑줄 친 부분이 anti 유가적 성격을 보여주는 도가적 문구임.

(6) 큰 도는 흘러 넘치니 좌우 어디로든지 흐를 수 있다. 만물이 그에 의뢰하여 생성되었건만 도는 말하지 않고, 공(功)을 이루고도 이름을 드러내거나 소유하지 않으며, 만물을 덮어 기르나 주재(主宰)하지 않는다.

☞ Zola Guide 유가의 하늘은 ‘주재’하는 하늘임. 16-수능-16번 선지 ㉔ ‘하늘이 만물의 운명을 주재하는 인격적 존재’라고 보는 입장은 유가임.

(7)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아지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되고, 신(神)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게 되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차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겨나고, 후왕(侯王)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르게 하니, 곧 하나를 얻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 Zola Guide 유가면 하늘이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가 필요없음. 하늘 그 자체가 순선[仁]하기 때문에 맑은 존재임.

5)[확인] 아래 제시문은 유가일까? 도가일까? 15-수능-20번을 풀어봐!

-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만물을 생겨나게 하니,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일체이다.

[15-수능-20번]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㉑~㉔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㉑ 문제: (가), (나) 사상의 자연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인(因)과 연(緣)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법(法)이다. 이것을 공(空)하다고 한다.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에 따라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공하다.

(나)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道)라고 한다. 하늘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만물을 생겨나게 하니[化生],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일체이다.

㉒ 학생 답안

(가), (나)의 관점을 비교하면, (가)는 ㉑ 자연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며, ㉒ 살아 있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나)는 ㉓ 하늘[天]을 인간이 따라야 하는 도덕 원리의 원천으로 보며, ㉔ 하늘 아래 만물이 무위(無爲)의 자연스러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㉑ (가), (나) 모두 자연 만물을 상의(相依)와 화해(和諧)의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본다.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㉑

3-2

동양의 죽음관(+서양의 죽음관)

☞ Zola Guide 동양의 죽음관은 동양 사상의 맥락에서 암기해 두어야 응용 제시문과 선지들을 해결할 수 있음.

28. 유교(공자)

- (1)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 (2) 예(禮)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喪, 초상)은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
- (3) 자공이 공자에게 “죽은 사람이 세상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만약 죽은 사람이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효자와 현손들이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고 죽음에만 매달리지 않을까 두렵고,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불효한 자손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내다 버리지 않을까 두렵다. 죽은 사람이 세상의 일을 알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네가 죽은 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니, 그때 가서 알아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29. 도가(장자)

- (1) 인간은 본시 생명이 없었다. 생명은 고사하고 형체도 없었고, 기(氣)조차 없었다. 그저 망막하고 혼돈한 대도(大道) 속에 섞여 있던 것이 변해서 기(氣)가 되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되고, 형체가 변해서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죽음이 된 것이다.
- (2) 아내가 죽은 당초에는 나라고 어찌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겠소. 그러나 그 근원을 살펴보면 본래 삶이란 없었던 거요. 그저 삶이 없었을 뿐 아니라 형체도 없었소. …(중략)… 기가 생기고 형체가 변해서 삶을 갖추게 된 것이요. 이제 다시 변해서 죽어가는 것인데, 이는 춘하추동이 서로 4계절을 되풀이하여 운행함과 같소.
- (3) 삶은 죽음의 무리, 죽음은 삶의 시작, 누가 그 실마리를 모르랴. 사람의 삶은 기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모이면 삶이 되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만약 사생(死生)의 무리를 이루면, 나 또한 무엇을 근심하랴, 만물은 그런고로 하나이니라.
- (4) 스승이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싶다고 하였다.
스승 : 내게는 하늘과 땅이 안팎 넓이요, 해와 달이 한 쌍 옥이요, 별과 별자리가 둥근 구슬, 이지러진 구슬이요, 온갖 것들이 다 장례 선물이다. 내 장례를 위해 이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모자라는 것이 없거늘 이에 무엇을 더한단 말인가?
제자 :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먹을까 봐 두렵습니다.
스승 :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솔개의 밥이 되고, 땅 속에 있으면 땅강아지와 개미의 밥이 되거늘 어찌 한 쪽 것을 빼앗아 탄 쪽에 주려고 하는가?

30. 불교

- (1) 네 전생을 알려거든 현재의 삶을 보아라. 그리고 내생을 알고자 하거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아라. 고의로 업을 지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보(報)를 만나니, 혹은 현세에 받고 혹은 내세에 받는다.
- (2)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은 것이고, 다음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 6)☞ Zola Guide 1 유교와 도가의 삶·죽음에 대한 공통점은?
- 7)☞ Zola Guide 2 유교와 불교의 삶·죽음에 대한 공통점은?
- 8)☞ Zola Guide 3 도가와 불교의 삶·죽음에 대한 공통점은?

31.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 Zola Guide 에피쿠로스와 장자(도가)를 헛갈려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장자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장자 제시문과 비교하면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1)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이며, 죽음이 왔을 때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에링턴, “서양 윤리학사”(미래엔 교과서 재인용)

(2)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제한적인 시간을 부여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불멸성에 대한 열망을 제거함으로써 우리의 유한한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삶이 멈추고 나면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찾아올 때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예상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에피쿠로스, “쾌락”(비상교육 교과서 재인용)

(3)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죽음을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다른 때에는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 준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열망한다. 반면 현자는 삶을 도피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삶이 그에게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부재가 어떤 악으로 생각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 “쾌락”(17 ebs 수특 재인용)

9)[Zola] 다음 제시문의 사상 또는 사상가를 써라!

[15-7] 죽음이러는 공포는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악이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감각이 사라져서 어떠한 쾌락과 고통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18-6] 진인(眞人)은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18-6] 현자(賢者)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18 ebs 수특]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자연)이 정해 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지를 옛사람들은 천제(天帝)가 준 생사의 고(苦)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

32. 하이데거(실존주의)의 죽음관

(1) 그의 모든 존재 가능성들 가운데 가장 고유한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서 현존재는 어떤 다른 특정 가능성이 아니라 다른 아닌 자기의 존재 가능성 자체를 문제시하게 된다. 그 안에서 현존재의 존재 자체가 문제시된다. 죽음을 자기의 가장 고유한 오직 자기만의 가능성을 보게 된 현존재는 이제 자기에게 잠재해 있던 능력, 즉 일상적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본래적인 자기로 실존할 수 있는 능력을 새삼 자각하게 된다. 즉 자유인으로서의 자기를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과 각성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비본래적이었던 지를 알게 된다. -존재와 시간

(2) 하이데거는 “죽음 없이는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사실 사람들은 부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며 일상적으로 그런 조건들이 최고의 가치인 양 여기고 살지만 막상 죽음이 닥치면 그런 조건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는다.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재산이나 명성 등을 궁극적인 목표로 간주하고 오히려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할 인간에 대한 사랑 등이 수단으로 간주되는 잘못된 삶을, 죽음을 직면하고서야 깨닫는다. 즉 죽음은 현존재가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며,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근원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이다. 죽음은 이렇게 단순히 삶의 종말이 아니라 자신과 세계를 드러나게 하는 개시력(開示力)을 갖는 사건이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현존재가 항상 자신이 이미 죽음 앞에 내던져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현존재의 실존 방식이 전적으로 뒤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도피하지 않고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면서 … (중략)…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 나의 존재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앗아가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를 환히 드러내면서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 주는 경험이다.

- 율용아, 「존재의 철학자 하이데거, 의미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33. [천재교육+교학사 각색, 윤사] 실존주의의 등장 배경과 특징

근대 이성주의가 절대시했던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적 믿음은 제 1, 2차 세계 대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성적 존재를 자처하던 인간은 이제 죽음, 고통, 전쟁 등 ‘한계(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에 절망하고 개인의 현실적 삶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현대 과학 기술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 가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인의 존재 의미가 상실됨에 주목하면서 등장하게 된 사상이 현대의 실존주의 사상이다.(교학사)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모두 각 개인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실존주의는 개인이 가지는 하나하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중시한다.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가진 보편성, 곧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구체성 곧 실존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금 이 모습, 나의 현재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천재교육+교학사)

4

가족관계

☞ Zola Guide 여기는 유가 사상임. 꼼꼼히 암기해 두어야(비록 활용도는 떨어지더라도) 뒷통수 맞지 않음.

34. [교사용 지도서] 해로동혈(偕老同穴) (관련된 항 : ‘결혼의 윤리적 의미’)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한 무덤에 묻힌다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하자는 부부의 굳은 맹세를 이르는 말로서, “시경”에서 나오는 말이다.

死生契闊與子成說執子之手與子偕老 于嗟闊兮不我活兮于嗟洵兮不我信兮-

죽거나 살거나 멀리 떨어지거나 그대와 더불어 잊지 말자고 굳은 언약하였네.

그대의 손을 잡고 그대와 함께 늙어가겠노라고.

아, 떨어지게 되었구나! 나와 함께 살지 못하겠네.

아, 굳은 맹세여! 내 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였네. (“시경”, ‘패풍격고’)

☞ Zola Guide 이 시는 싸움터에 간 남편이 고향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임.

[교학사] 부부 관계

유교에서 부부는 모든 사회관계의 시작이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예에서 군자의 도가 시작하여 효도와 우애로 확산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황은 부부를 다른 혈통의 두 사람이 친애의 덕목으로 자연적 결합을 이룬 것으로 보았고, 도덕적 분별을 가져야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부부유별(夫婦有別)은 부부가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면서 분별 있게 행동함을 의미한다. 즉 부부는 배우자가 나와 다른 사람으로서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고, 전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35. 전통 사회에서의 혼인의 의미와 절차

- 의미 : 부부의 도리는 두 성(姓)이 합하는 것이다. 내외가 분별이 있으니[부부유별(夫婦有別)] 서로 공경하기를 귀한 손님같이 하라[상경여빈(相敬如賓)].

- 절차 : 혼담(신랑 측에서 신부가 될 측에 청혼하고 여자 측이 동의함)→납채(신랑 측에서 혼인이 정해졌음을 알리면서 신랑의 사주(四柱)를 보냄)→납기(신부 측에서 혼례 날짜를 정함)→납폐(신랑 신부가 예물을 주고 받음)→대례(신랑이 신부이 집에 가서 혼인식을 치름)→우귀(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시집으로 들어감)

☞ Zola Guide 절차는 필요없고, 의미는 알아두셈!

36. 음양론(陰陽論)

(1) 도가 하나[一]를 낳고 하나가 둘[二]을 낳고 둘이 셋[三]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노자, 「도덕경」

(2) 태극이 움직여 양을 낳고, 그 움직임이 극에 이르면 다시 고요해진다. 고요해지면 음을 낳고, 그 고요함이 극에 달하면 다시 움직인다. 이렇게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해짐이 서로의 뿌리가 되어 음과 양으로 나누어진다. 음양 이기(二氣)가 교감하여 만물을 화생(化生)하니, 만물이 끊임없이 생겨나 그 변화가 무궁하다.

-주돈이, 「태극도설」

[해설]

- * 음(陰)은 여성스러움을 상징 : 어둠, 부드러움, 차가움 등의 성질을 지님
- * 양(陽)은 남성스러움을 상징 : 밝음, 강함, 따뜻함 등의 성질을 지님
- * 음과 양이 서로 맞물리고[상합(相合)] 대립하면서 의지하여[대대(對待)] 이 세계와 그 변화를 이룸
- * 부부 관계도 서로 다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았음

37. 유교에서의 효

(1) 지금의 효라는 것은 아버이를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개와 말도 모두 길러지고 있지 않는가. 만약 공경이 없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구분하겠는가? -논어

☞ Zola Guide 봉양보다 공경(양지)가 효의 근본임을 강조하는 글임. 단, 봉양이 효의 핵심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봉양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아님.

(2) 순임금이 아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다함에 고수가 안락을 이루었으니, 고수가 안락하매 천하가 교화되었으며, 고수가 안락하매 천하의 부자간은 이를 본받아 또한 안정되었다. 이것을 일러 대효(大孝)라 하는 것이다. - 맹자

* 고수 : 순임금의 아버지

☞ Zola Guide 가족 윤리가 국가 통치 윤리의 근간이 됨을 알 수 있음.

(3) 부모에게 허물이 있으면 기운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기쁘게 하고 말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諫)해야 하고 간하여도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의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효심을 일으켜 부모가 기뻐하시면 다시 간언해야 한다.

☞ Zola Guide 부모에게 '간 또는 간언'하는 법은 잘 확인해 둘 것.

(4) 부모가 비록 죽더라도 장차 착한 일을 함에 부모에게 훌륭한 이름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단행하며, 장차 착하지 못한 일을 함에 부모에게 부끄러움과 욕이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반드시 결행하지 않을 것이다.

(5) [효경(孝經)] 효의 실천 방법

- 불감훼상(不敢毀傷) : 효의 시작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 봉양(奉養) : 부모를 물질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잘 모시는 것
- 양지(養志) : 부모의 뜻을 헤아려 실천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
- 공대(恭待) :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하여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
- 불욕(不辱) :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해 드리는 것
- 혼정신성(昏定晨省) : 저녁에 이부자리를 펴 드리고, 아침에 문안을 여쭙는 것
- 입신양명(立身揚名) : 효의 완성으로, 덕을 쌓아 떳떳한 지위를 얻어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것

☞ Zola Guide 혼정신성 외 단어는 모두 알아둘 것. 혼정신성도 효와 관련된 용어라는 정도는 알아둘 것.

10[확인, 교사용 지도서+14 ebs 수특] 다음 글의 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2개 골라.

“순임금이 아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다함에 고수가 안락을 이루었으니, 고수가 안락하매 천하가 교화되었으며, 고수가 안락하매 천하의 부자간은 이를 본받아 또한 안정되었다. 이것을 일러 대효(大孝)라 하는 것이다.”

* 고수 : 순임금의 아버지

- ① 효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쌍무적인 행위이다.
- ② 효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자 마음이다.
- ③ 효는 국가의 질서 유지에 근간이 될 수 있다.
- ④ 효는 올바른 가정 교육의 결과이다.
- ⑤ 효는 덕치(德治)의 바탕이다.

38. 불교에서의 효(17 수특 ebs 재인용)

(1) 그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해 이 경(經)을 쓰고, 부모님을 위해 이 경을 독송하고,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부모님을 위해 삼보(三寶)에 공양하고, 부모님을 위해 재계(齋戒)를 지켜 받들고, 부모님을 위해 보시(布施)를 해서 복을 지어라. 이렇게 하면 곧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일컬을 것이며, 이런 행(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나 갈 자식이니라.

(2) 중생의 은혜라는 것은 곧 처음 시작된 곳이 없어서 일체 중생이 오도(五道)에 돌고 돌아 백천겁을 지내는 동안 여러 번 태어나는 가운데 서로 부모가 되었다. 서로 부모가 되었던 까닭에 일체의 남자는 곧 자애한 아버지요, 일체의 여자는 곧 자비한 어머니이니, 옛날에 태어났을 때마다 큰 은혜가 있었으므로 현재의 부모와 평등하며 차별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옛적 은혜도 오히려 갚지 못하였거늘 혹 망령된 업(業)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모든 것을 여기고 집착하는 까닭에 도리어 그 원수가 되는 것은 왜 일까? 무명(無明)으로 말미암아 전생에 일찍이 부모였으므로 은혜를 갚아 서로 이롭게 함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이롭게 함이 없는 것을 불효라고 하는 것이다.

☞ 불교에서는 업(業)과 윤회(輪回) 사상에 근거하여 효(孝)를 설명한다.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셀 수 없을 정도의 윤회를 거듭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어 왔다고 본다. 그러므로 다른 중생들이 모두 나의 부모였던 적이 있었을 것이므로, 현세 부모의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慈悲)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39. [4종 교과서]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확인하시오.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 / 백년가약(百年佳約) / 부부유별(夫婦有別) / 부부상경(夫婦相敬) / 상경여빈(相敬如賓) / 일심동체(一心同體) / 정조(貞操)
 부자유친(父子有親) / 부자자효(父慈子孝) / 자애(慈愛) / 불감훼상 / 입신양명 / 봉양(奉養) / 양지(養志)
 수족지의(手足之義) / 장유유서(長幼有序)
 노마지지(老馬之智)

☞ Zola Guide 모르는 단어는 사전 찾아보면 모두 확인됨. 어떤 관계에서 사용되는지 확인해 둘 것.

40. [천재교육] 레비나스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

한 사람은 아버지가 됨으로써 자신의 이기주의,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생각에서 해방된다. 그 한사람의 자아는 이제 그 자식과 자식의 미래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미래와의 관계를 ‘생산성(비옥성)’이라고 부른다.

이 생산성을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유한성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아이의 출산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 한 사람은 홀로 미래를 체험할 때 그 한 사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기나긴 여행 끝에 이타카로 돌아온 오디세우스처럼 그 사람은 세계의 테두리 안으로 되돌아와 결국 늙어 죽고 만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감추어진 미래를 찾아 나서고, 이 미래를 아이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한다. 아이를 통해서 과거는 절대성을 잃게 되고 절대적 미래의 차원이 열린다. 아이의 출산으로 과거는 또다시 현재와 미래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통하여 시간은 다시 젊어지고 푸름을 띠게 된다. -강영안, “해설: 레비나스의 철학”

☞ Zola Guide 독해형으로 출제 가능함. but 암기할 내용은 아님.

11)[Zola 연습] (가)와 (나)에 나타난 가족 윤리를 비교하시오. 단, (가) 제시문은 교과(배경) 지식있는 것이 좋음.

(가) 가족을 사랑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만물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늙은이를 보살피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늙은이로 넓혀가고, 자기 어린이를 보살피고 다른 사람의 어린이를 보살핀다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또한, 나라의 임금은 부모로서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며 백성은 자식으로서 임금을 부모처럼 섬겨야 한다.

- 맹자

(나) 가족은 공동체 윤리에 의거한 사랑의 결합에 의해서 맺어진 부부가 그들의 미혼 자녀와 함께 구성된다. 이 가족은 남녀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녀의 상하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 윤리에 의거한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 공동의 재산을 취득하고 형성한다. 자녀는 부모의 공동체 윤리적 사랑의 결실이자 대상이요 목표이다. 이렇게 자신과 상대가 분리되지 않은 가족 공동체의 윤리는 자신과 상대가 구분되고 이해타산을 중시하는 시민 사회 공동체 윤리로 이행하고, 이후 가족 공동체 윤리와 시민 사회 공동체 윤리를 함께 가지는 국가 공동체 윤리로 나아간다.

- 헤겔

☞ Zola Guide 간단한 키워드(제시문 참고)로 채워볼 것

	(가) 독해+지식	(나) 독해로만
공통점		
차이점		

5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 Zola Guide 니부어가 개인 윤리인지 사회 윤리인지 헷갈리면 그냥 둘이 섞여 있다고 봐도 된다. Zola가 보기엔 니부어의 사상이 아주 엄밀한 사상은 아닌 것 같다. 니부어라는 목사님한테 너무 논리를 강요하지 말자!! 그러니 본인이 헷갈리는 것은 아예 외워버리는 것이 좋다.

41. 사회윤리(교사용 지도서)

‘사회 윤리’(social ethics)라는 말만큼 남용되면서 오해되는 말도 드물 것이다. 사회 윤리라는 말은 사회 구조 내지 제도의 도덕성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 의미를 갖는 특정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사회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모든 윤리 문제 일반에까지 확대해서 적용 내지 남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윤리를 강조할 경우 개인의 책임을 구조나 제도로 전가함으로써 개인의 면책 심리를 조장한다는 우려와 관련되는 바 사회 윤리에 대한 오해 역시 빈번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회 윤리에 대한 이러한 남용과 오해는 그 나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현대 윤리학에 있어 귀중한 하나의 발견이자 성과라 할 수 있는 ‘사회 윤리’라는 용어의 고유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다지 공정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용어가 생겨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주목할 때 사회 윤리라는 말은 적어도 강조되어야 할 두 가지 초점을 동시에 함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윤리에 함축된 하나의 초점은 그 용어에 있어 ‘사회’(social)라는 말에 강조를 두는 것으로서 사회 구조나 제도는 단지 개인들의 행위에 의한 환원적인 설명이 어려운 그 나름의 구성 원리나 전개의 논리가 있다는 사회 이론적 내지 사회 철학적 사실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 윤리는 사회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개인의 심정, 양심, 의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제도,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 구조나 체제의 도덕성을 문제삼고자 하며, 그런 면에서 개인 윤리적 정위(正位)를 가진 전통 윤리와 구별되는 것이다. 전통 윤리학이 지닌 한 가지 난점은 그것이 윤리적 함축을 지닌 현대의 주요한 사회적 제(諸)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다른 초점인 ‘윤리’(ethics)라는 측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회 윤리가 윤리나 도덕의 영역에 남고자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도덕적 행위 주체인 인간의 의식이나 행위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 윤리학자들도 윤리의 문제가 종국적으로는 그 자체로서 의도나 동기를 갖는다고 하기 어려운 비인격적 사회 구조나 제도가 아니라 의지를 가진 행위 주체인 인간과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회 윤리적 문제에 있어 개인이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개인의 역할이 제도적, 집단적 맥락 속에서 도출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사회 윤리가 구조나 제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면책의 심리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오해나 우려와 달리, 사회 윤리는 개인의 책임을 사회적, 집단적으로 보다 새로운 맥락에서 재규정하고자 한다. 구조나 제도의 도덕성은 결국 제도와 관련된 집단적 맥락에서 개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황경식,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1995

지금부터 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니부어

42. [천재교육] 니부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도덕적이다. 사람들은 본래 동정심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 동정심과 배려의 마음은 교육을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사람들의 이성적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감을 갖게 하며, 교육을 통하여 정의감이 길러지는 가운데 사람들을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결국,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 상황을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회 집단의 경우,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다.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을 형성하는 개인이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충동을 견제하고 극복할 만한 이성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능력도 적어서, 끝없는 이기심을 보인다.

사회 집단이 개인보다 비도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자연적 충동을 억제할 만큼 강력한 합리적 사회 세력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개인적 이기심은 개별적으로는 점잖게 나타나지만,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날 때에는 더욱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간 사회를 둘러싸는 문제 대부분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보면, 사회의 요구와 양심의 요청 사이에는 화합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된다. 사회를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이고,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두 도덕적인 입장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 사이의 모순도 절대적이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조화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들은 공동체 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도덕의 숭고한 규범들에 충실해야 할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 명백히 악한 방향으로 기울 때에는 그 집단을 벗어남으로써 자신들의 개인적 이상을 지켜야 할 것이다.

12)[Zola] 위 제시문에 근거하여 문장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시오.(가급적 제시문을 보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할 것.)

- ① 사람들은 본래부터 어느 정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② 사람들의 이성적 능력은 정의감과 무관한 능력이다.
- ③ 사회집단은 개인보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이 부족하다.
- ④ 개인의 이기심은 집단 안에서 억제되어 나타난다.
- ⑤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 사이의 갈등은 일시적이다.
- ⑥ 개인적 측면에서 최고의 도덕성은 정의이다.
- ⑦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궁극적으로 일치한다.
- ⑧ 이기심이나 반항, 강제력 같은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회 정의를 추구해서는 안된다.
- ⑨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배타적이다.
- ⑩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과 개인이 추구하는 도덕적 이상은 쉽게 조화될 수 있다.
- ⑪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개인의 양심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43. [교사용 지도서] 니부어,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의 도덕적·사회적 행위와 사회(국가, 인종, 경제)집단의 도덕적·사회적 행위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개인들은 행위의 문제를 결정할 때, 자신의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일 수 있다. 그들은 본래 동정심의 척도와 그와 같은 이해심을 부여받았으며, 그 폭은 빈틈없는 사회 교육에 의해서 확대될 수 있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정의감에 민감하게 한다. 교육적인 훈련이 이러한 정의감을 순화시키고 이기주의적인 요소들을 몰아낼 수 있다.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은 공정한 객관성의 척도로 그들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인 상황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간 사회와 사회 집단에서 이러한 모든 성과들을 이루기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경우보다 더욱더 어렵다. 모든 인간 집단에서는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보다 충동을 견제하고 인도할 이성이 적고, 자기 초월의 능력이 적으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적고, 따라서 더욱더 많은 무제한의 이기주의가 그들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개인의 도덕에 비해서 집단의 도덕이 열등함을 나타내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자연적인 충동에 견주기에 충분히 강력한 이성적인 사회 세력을 확립하는 난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는 자연적 충동에 의해서 그 응집력을 성취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단순히 개인의 이기주의적 충동이 합성된 집단 이기주의(collective egoism)의 표출이기도 하다. 개인의 이기주의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표현될 때보다도 공동의 충동으로 연합될 때 더욱 생생하게 표현되고 더욱 누적된 파장을 나타낸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다룬 것이 논쟁적인 성격을 가졌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도덕주의자들과 세속적인 도덕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이기주의가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으로 주입된 선한 의지의 성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견제를 받는다고 상상하며, 모든 인간 사회와 집단 사이의 사회적 조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의 지속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서 도덕주의자, 사회학자, 교육가들이 작성한 사회 분석과 예언들은 결국 우리 시대의 매우 현저한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왔다. 그들은 자연 질서에 속해 있으면서 이성이나 양심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오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집단적 행동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고서,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정치적인 필연성을 무시한다. 그들은 제국주의의 형태로나 계급 지배의 형태로나 집단적인 권력이 약한 자들을 착취할 때 그에 대항해서 다른 권력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권력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양심과 이성이 투쟁에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권력을 제한시킬 뿐 철폐시키지는 못한다.

13)[Zola 1] 제시문이 니부어라고 하자. 옳은 선지를 있는 대로 골라.

- (1) 계층 간 갈등은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2)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 사회 부정의를 해결해야 한다.
- (3) 사회 구조의 도덕성은 개인 행위의 도덕성에 영향을 준다.
- (4) 정치적 강제력은 집단적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부적절하다.
- (5)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6)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양심의 역할을 부정한다.
- (7) 집단의 이기적 요구와 개인의 도덕성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
- (8) 개인의 양심적 통찰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 (9) 집단들 간의 관계는 윤리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정치적이다.
- (10)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은 집단 속에서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 (11)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고양은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 (12) 집단 이기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성찰만으로는 극복되기 어렵다.
- (13) 개인의 도덕적 행위가 사회 구조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 (14) 양심적인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 (15)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 문제 해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16)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17)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일지라도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18) 도덕적 선의지는 사회적 갈등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 (19) 개인의 사회적 행위는 사회 집단의 사회적 행위와 구분될 필요가 없다.
- (20) 외적 강제력은 목적이나 방법 면에서 모두 도덕적 정당성을 가져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21) 집단의 영향 아래에서도 개인의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Zola 2] 니부어의 논란이 되는 표현

- 외적 강제력 =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
 - = 또 다른 집단의 이기심·반항·원한 등
 - =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
 - =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참고 1]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한 등과 같이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참고 2]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Zola Guide 니부어의 용법 및 평가원 선지 확인

개인 line	사회/집단(비개인) line
이성, 선의지	정치적
합리적	비합리적
내적, 자율성	외적, 강제력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는 방법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

[14-9평-15번, 78%] 사회 부정의는 <u>외적 강제력</u> 을 통해 타파되어야 한다.	
[14-수능-19번-ㄷ, 47%] <u>사회적 강제력</u> 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14-수능-19번-ㄹ, 47%] <u>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u> 은 배제하세요.	
[15-수능-19번-ㄱ, 41%] <u>선의지의 통제</u> 를 받는 <u>비합리적 수단</u> 의 필요성을 깨달으렴.	
[15-수능-19번-ㄹ, 41%] <u>도덕적 설득</u> 과 <u>정치적 강제력</u> 이 병행되어야 함을 깨달으렴.	
[16-9평-6번, 79%]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u>합리적인 사회 강제력</u> 을 권고한다.	
[17-6평-10번-ㄷ,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선의지의 함양</u> 이 필요한가?	
[17-6평-10번-ㄹ, 66%]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u>강제력</u> 의 사용이 필요한가?	
[17-수능-5번, 72%] 개인 간 갈등은 <u>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u> 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18-수능-13번, 89%] 진정한 정의는 <u>선의지만으로</u>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6

인권 3세대론, 준법과 시민 불복종

☞ Zola Guide (1) 새로 추가된 부분이 많다. 아직 출제 안 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지식형으로 공부하고 독해형으로 문제를 풀길 바란다.

(2) 룰스의 시민 불복종은 달달 외워둬라!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임!

44. [인권의 변천 과정] 바사크의 인권 3세대론(에듀넷)

(1) 개인의 자유와 권리 - 1세대 인권

일반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시민혁명을 거친 이후부터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왕이 정치를 하는 군주 정치를 실시하면서 귀족과 성직자들만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대다수 시민들은 권리는커녕 과도한 세금으로 가난과 여러 제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흉년이 겹치면서 빵과 기타 식료품의 값이 폭등하자 시민들의 생활고는 극심해졌고, 지배계층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제도를 없애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시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시민들은 절대 군주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게 되었고, 그 후 자유와 평등은 시민들에게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 의식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인간 존중 정신이 기본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로 규정되었고, 인권 보장을 법으로서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요구하였고, 이는 선거권 확대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 운동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자신들의 대표를 의회로 보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었던 선거권이 점차로 노동자, 농민, 여성들에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민혁명으로 얻은 자유권과 차티스트 운동의 영향으로 얻은 참정권은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인권의 형성과 더불어 강조된 인권으로 1세대 인권이라고도 불립니다.

(2) 인간답게 살 권리 - 2세대 인권

산업혁명 시기의 노동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하루에 12~14시간 이상씩 일하면서도 고된 일을 아주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어린 아이들까지도 노동에 시달리는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권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권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구권도 인정되기에 이릅니다. 유럽에선 1919년 독일이 최초로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사회권을 헌법에 명시하였고, 이후 여러 국가에서 복지국가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2세대 인권이라 합니다.

(3) 앞으로 노력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 3세대 인권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48년 국제 연합(UN)은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이 명확해졌으며, 기아, 장애인, 아동, 난민 등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와 민족이나 집단들의 자결권,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등이 3세대 인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45. 바사크의 인권 3세대론(16/17 ebs 수특, 17 ebs 수완 활용)

(1) 1세대 인권 -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자유권 중심의 인권으로서, 17~18세기의 서구 사회의 정치적 혁명과 관련되어 있다. 자유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의 개입보다는 자제를 선호하며, 이에 따라 1세대의 인권을 ‘소극적’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2) 2세대 인권 - 사회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서구 자본주의의 지나친 발달과 자유에 기반을 둔 개인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평등 중심의 인권으로서 19세기를 전후하여 발달하였다. 2세대 인권의 특징은 일정한 분배 정의를 확립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권 중심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요망되며, 이런 점에서 1세대 인권에 비해 “~에 대한 권리”로서 ‘적극적’ 권리로 여겨진다.

(3) 3세대 인권 - 집단적 권리(연대와 단결의 권리)

앞의 두 세대의 권리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권리인데 개인과 집단에서의 소수자, 세계에서의 제3세계 등과 같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각성에서 나온 권리이다. 3세대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여 여성과 인종 문제, 그리고 제3세계의 빈부 격차 문제, 국제적인 무기 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 위기 등으로 인한 인류 삶의 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목록의 인권이다. 1, 2세대 인권과는 달리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6. 준법 - 동의론(로크, “통치론”)

[비상교육+17 ebs 수특+이것 저것]

보통 동의에는 명시적 동의와 묵시적 동의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현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느 누구도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자 그 정부의 신민으로 만든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전혀 명시적 동의를 표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서 어디까지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적어도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고 말하겠다. 그러한 향유가 그와 그의 상속인을 위한 영구적인 토지 소유이건, 단지 1주일 동안 머무르는 것이건, 단순히 대로 위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상 그 정부의 영토 내에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게 복종의 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

47. 소로의 시민 불복종

(1, 미래엔) 우리는 모두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는, 어떤 때이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그 법을 어겨라. ... 바보 같은 법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그로부터 빚어질 엄청난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독재 정치는 독재자가 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민의 동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법이 자연법에 비추어 형평성보다는 독단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한다면 순순히 따르지 말고 양심에 따라 저항하라.

(2, 비상교육) 소로는 양심의 법이 정부의 법보다 한층 고차원적인 법이며, 두 법이 충돌한다면 시민은 정부의 법보다는 양심의 목소리에 복종하는 게 의무라고 주장했다. 정당하지 않은 법이 존재한다면 시민은 세금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불복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동료 시민에게 잘못을 자각시켜, 올바르게 정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3) 정부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방해받지 않고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적 기관일 뿐이다.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다음 국민이 되어야 한다. 법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참고, 미래엔] 소로, “월든”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드득후드득 떨어지는 빗속에, 또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너무나도 감미롭고 자애로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 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적인 감정이었다. ... 나는 사람들이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장소에서도 나와 친근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분명히 느꼈다. 나에게 혈연적으로 가장 가깝거나 가장 인간적인 것이 반드시 어떤 인간이거나 어떤 마을 사람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어떤 장소도 나에게 낯선 곳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 Zola Guide 환경 윤리 부분에 나오는 교과서 자료이다. 소로라는 친구가 이런 친구이다. 이런 친구가 부정의한 국가(당시 미국은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또한 멕시코의 영토를 침략하여 전쟁을 벌였다. 나쁜 새끼들!)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소로가 ‘이런 국가’를 배경으로 불복종을 논했다면, 롤스는 ‘입헌 민주주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불복종을 논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상가를 단순히 1:1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48. 롤스의 시민불복종(“정의론”)

(1) [교학사]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 행위는 ‘마지막 수단’이며, 만약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목표는 사회 정의의 기본적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합법적인 개혁의 방법, 즉 의회·청원·선거를 시도했지만, 그것들이 소용이 없어야 한다. 셋째,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넷째,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 Zola Guide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러나 아직 안 나온 선지들이 보이는 제시문임.

(2) [미래엔, 윤리와 사상]

시민 불복종은 … 첫째, 시민 공통의 정의와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인 신념에 의거하는 것은 시민 불복종의 요건이 될 수 없다. 둘째, 공공적 행위여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공공 원칙에 관련된 것을 양심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공공 원칙에 관한 논의만큼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비폭력적이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동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들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미래엔, 생활과 윤리, 15 개정]

현존 체제를 받아들여야 할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때로는 어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한 요구 사항들은 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린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따르게 된다.

(4)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15 개정]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 2원칙의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할 것을 내세우는 데는 나름의 추정 근거가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원칙들이 만족되었는지를 판별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원칙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결국 그것은 제도 속에 선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어떤 엄격한 요구 사항들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소수자들이 투표나 직책을 맡을 권리나 재산을 소유하고 이주할 권리가 거절될 때, 혹은 어떤 종교 단체들은 억압받고 다른 어떤 단체들은 여러 가지 기회가 거절될 때 이러한 정의롭지 못함은 모든 이에게 분명할 것이다.

49. 드워킨의 시민불복종(“원리의 문제들”)

(1) [천재교육, 생활과 윤리, 15 개정]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의 동기나 상황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시민 불복종의 유형이 나누어진다.

먼저 양심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반대하거나 도망친 노예를 노예 주인이나 관리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이 불복종 행위 자체가 도덕적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정의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흑백 분리 식당에서 흑인이 백인의 좌석에 앉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고,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하면서 국가의 전쟁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어긴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기반 시민 불복종이다. 정책 자체가 비도덕적이거나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평화 유지에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불복종하는 경우이다. 특정 국가가 핵무기를 이용하여 자국을 방어하는 것에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Zola Guide 드워킨의 불복종 유형을 외워둘 필요는 없을 것임. 출제가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득해형이 될 가능성이 높음.

(2)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더라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저항해야 한다. ... 시민들의 충성은 법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 자체에 대한 것이다. 시민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 헌정 질서에 대한 숙고를 거듭하여 기존의 법원의 판결이 그릇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할 수는 없다.

☞ Zola Guide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제시문이라고 봄. ‘헌정 질서’ 또는 ‘법 자체’가 판단 기준임.

(3) 자유란 곧 존엄, 자존, 진정성이다. 인간적 평등 즉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50. 싱어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 행위의 성공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공리주의적 계산을 거쳐야 정당화될 수 있다.”

51. [참고] 시민불복종 정당화 근거

이 논문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드워킨은 헌법에 의거하여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헌법에의 합치성, 즉 합법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모순적이다. 또한 도덕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헌법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에 의한 정당화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이러한 입장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롤즈는 공유된 정의감이나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정의관이나 정의감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등 시민불복종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싱어는 공리의 원칙에 의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버마스*는 롤즈나 싱어와는 다르게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같은 형식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하여 시민불복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입장은 실질적인 도덕 원칙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판단의 부담을 떠넘기는 문제가 있다.

-손철성,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

☞ Zola Guide 하버마스에 대해서는 ‘다른 윤리’에 대한 지식으로 접근 가능함. 별도로 외울 필요 없음.

7

직업관

☞ Zola Guide (1) 동·서양 사상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상가끼리 대립구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으로 접근하면 무지 헛갈린다. 일단 독해로 풀 수 있는 선지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하며, 독해로 풀리는 문제가 10문제 중에 8문제는 된다. 걱정하지 말고 독해로 풀고 잘 안 되는 것만 외워둘 것!

(2) 순자, 플라톤, 칼뱅·베버, 마르크스(공산주의)에 대한 지식은 있는 것이 좋음. 특히 칼뱅은 ‘종교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것. 종교인이 하는 얘기는 기본적 교리(전제)를 파악해야 함.

52. 칼뱅의 직업 소명설(“기독교 강요”)

(1) 신은 곧 극기와 단정한 정신과 검소와 절제를 권장하시고 무절제와 자만과 허식과 허영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다. 유용한 물질을 분배하더라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을 시인하지 않았다.

(2) 신은 일찍이 자신의 영원불변한 진리를 통해 구제하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은 내밀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당하고 공평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름에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정해 두었다 신은 그 같은 삶의 양식들을 소명(召命)이라 명했다. 그러므로 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이 정한 초소라고 생각해야 한다.

☞ Zola Guide 구원 예정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야지라는 쓰레기 논리가 아님!

53. 베버의 직업관(“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Zola Guide 칼뱅과 베버를 굳이 구분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듯. 어차피 베버 얘기가 칼뱅 얘기를 정리한 것임. 단, 칼뱅의 직업관을 자본주의 발전과 연결시킨 것은 베버임.

(1) [천재교육]

베버에 의하면 루터와 칼뱅은 직업이 신의 부르심이며, 자신의 직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신의 뜻에 충실한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소명으로서의 직업관을 가진 사람은 직업을 천직으로 간주하며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직업상 일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내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오늘날 소명으로서의 직업관은 직업과 노동의 사회적 책임의 문제를 환기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2) [교학사]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은 금욕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윤리적 토대를 발견했다. 즉 현세적인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전력을 다해 재산 낭비적 향락에 반대해 왔고 소비, 특히 사치품의 소비를 봉쇄해 버렸다. 금욕주의에 의하면, 목적으로서의 부의 추구는 비난받아야 할 최악의 것이라고 보면서도, 직업 노동의 열매인 부의 획득은 신의 축복이라고 보았다. 또한 부단하고 체계적인 직업 노동을 최고의 금욕을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거둬낸 자와 그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표라고 보았다.

(3) [미래엔]

세계는 오직 신의 영광에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고, 선택된 그리스도교는 오직 신의 율법을 집행하여 신의 영광을 각자의 몫만큼 세계에 증대시키도록 정해져 있다. 신은 그리스도교의 사회적 실행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신은 사회적 형성이 자신의 율법에 맞게 이루어져 자신의 목적에 일치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칼뱅파의 사회적 활동은 오직 '신의 영광을 더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의 현세적 삶에 봉사하는 직업 노동 역시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 왜냐하면 성서의 계시에 따라 그리고 자연적 통찰에 따라 인류의 효용에 봉사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이 우주의 놀라운 합목적적 형성과 질서는, 사회적 효용을 위한 노동이 신의 영광으로서 장려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신이 의욕한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4) 만일 신이 너에게 너의 영혼이나 타인의 영혼에 해를 주지 않고 다른 방법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을 제시하는데, 네가 이를 마다하고 더 적은 이익을 주는 방법을 따른다면, 너는 너의 목적 하나에 역행한 것이며, 신의 대리인(집사)이 될 것을 거부한 것이며, 신의 선물을 받아 신이 요구할 때 그 선물을 그를 위해 사용할 기회를 거부한 것이다. 당연히 율육과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신을 위해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해 노동해도 괜찮다. '부(富)'는 게으른 휴식과 죄 많은 향락에 대한 유혹으로서 위험시된 것이며, 부의 추구도 나주에 근심 없이 안일하게 살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위험시된 것이다. 반면에 직업 의무의 행사로서의 부의 추구는 도덕적으로 허용될 뿐만 아니라 명령된 것이기 까지 하다. 그에게 맡겨진 돈을 활용하여 증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던 종의 비유는 바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노동 능력이 있는 자가 구걸하는 것은 나태이므로 죄일 뿐만 아니라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웃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다.

(5) 확고한 직업의 금욕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근대적인 전문 직업을 윤리적으로 신성시했듯이, 이윤 기회에 대한 섭리적 해석은 기업가를 신성하게 만들었다. 영주의 고상한 방종과 벼락 부자의 과시적 허세는 모두 금욕주의가 증오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수성가한 부르주아는 대단한 윤리적 평가를 받았다. 즉 "신이 그의 사업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은 성공적으로 신의 섭리를 수행한 성도(聖徒)에 대한 용어이다.

54. 마르크스

(1) [15 ebs 수특, "경제학-철학수고"]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산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는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노동자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 곧 강제된 노동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타자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활 수단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인간에게 고유한 자유로운 의식적 활동으로부터 인간을 소외시킨다. 소외된 노동은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 다시 말해서 소외된 노동은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를 불러일으킨다.

☞ 노동은 본래 인간의 삶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인간은 사용 가치를 생산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한다. 그런데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노동 생산물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는 낯선 독립적인 힘으로 노동자를 지배한다. 이러한 현상을 마르크스는 소외라고 표현하였다.

(2) [15 ebs 수특]

마르크스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노동하며,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화된 노동으로 인해 노동의 소외 문제와 노동력 착취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적 토대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유물사관(唯物史觀)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사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도기를 거쳐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한다고 주장하였다.

(3) [17 ebs 수특]

매뉴팩처는 이전에는 독립적이었던 노동자를 자본의 지휘와 규율에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자신들 사이에 등급적 계층을 만들어낸다. 단순 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 방식을 대체로 변경시키지 않지만, 매뉴팩처는 그것을 철저히 변혁시키며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한다. 매뉴팩처는 노동자의 일체의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기형적인 불구로 만든다.

* 매뉴팩처 : 산업 자본가가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도구, 작업장, 원재료 따위의 생산 수단을 제공하고 그들의 수공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을 하게 하였던 제도. 16세기 중엽부터 산업혁명 때까지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음.

55. [보강, 교학사]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은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완전하고 자족적인 어떤 것이며 행위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의 목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삶을 이성을 동반하는 영혼의 활동과 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기능은 이것들을 잘, 그리고 훌륭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잘 살고 잘 행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결국 행복은 인간 삶의 목표로서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실현해야 할 기능이나 본성을 잘 실현하거나 발휘하는 상태, 혹은 활동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를 직업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직업 생활에서의 탁월한 수행과 성취는 행복한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Zola Guide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읽어보셈. 고대 그리스 사상가 중에는 플라톤이 그동안 출제되었음. ‘탁월성(덕)’은 고대 그리스의 기본 사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공통된 내용이다. 물론 행복도 그렇다. 둘의 차이는 덕이 ‘타고난(선천적)’ 것이냐, ‘실천으로 형성되는(후천적)’ 것이냐의 차이이다.

[Zola, 평가원 기출, **독해와 지식 구분 연습**] 각 제시문을 읽고 독해로 풀리는 선지는 지우고, 틀린 선지만 지식으로 공부해두면 됨!(답은 0개~모두까지)

14)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하나의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이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것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 ㄱ. 직업에 대한 개인들의 자유 선택을 중시한다.
- 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분업을 중시한다.

15)인간의 노동은 본래 자연 세계를 변형하는 주체적, 자율적 활동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 ㄱ. 노동 소외의 극복을 위해 분업을 강화해야 한다.
- ㄴ.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이 더 중요하다.
- ㄷ. 신이 부여한 노동의 신성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16)통치자는 사유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며 군인처럼 공동으로 생활해야 한다. 또한 세상의 금을 탐해서도 호화로운 집에 기거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통치자는 오직 자신과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데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

- ㄱ.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서 공사(公私)의 구별을 강조한다.
- ㄴ.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중시한다.
- ㄷ. 공직자로서의 엄격한 자기 절제를 강조한다.

17)인간은 구원을 예정해 놓은 신의 부르심[召命]에 노동을 통해 응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여러 가지 삶의 양식(樣式)들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 ㄱ. 노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 ㄴ. 사유 재산의 축적을 반대한다.
- ㄷ. 노동이 가진 생계 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한다.
- ㄹ. 신성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정당하게 소득을 얻는다.
- ㅁ. 금욕적 태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부를 추구한다.

18)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각자가 폴리스에서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ㄱ. 각자의 덕을 발휘하여 국가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강조한다.
- ㄴ. 각자의 탁월성을 중시한다.
- ㄷ. 사회적 분업을 토대로 한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한다.
- ㄹ. 구성원 각자가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19)신(神)은 만사(萬事)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각각의 소명(召命)을 지정하였다. 우리는 신의 축복에 의해 양육되고, 우리의 노동도 신의 축복에 의해 번창한다.

- ㄱ. 금욕적인 생활 태도를 바탕으로 한 직업 생활을 강조한다.
- ㄴ.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ㄷ.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주장한다.

20)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노동의 본질이 왜곡된다. 노동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 ㄱ. 인간 소외의 극복을 위해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 ㄴ. 노동을 통한 사유 재산 축적을 중시한다.
- ㄷ. 노동이 가진 생계 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한다.

21)자본주의에서 사유 재산은 소외된 모든 인간 생활의 표현이다. 사유 재산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면 모든 소외가 지양되어 계급이 소멸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

- ㄱ.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실현해야 한다.
- ㄴ. 필요에 따른 분배는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
- ㄷ. 노동의 분업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해야 한다.

22)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일어난다.

- ㄱ. 자본주의의 노동 분업이 노동 소외의 원인이다.
- ㄴ. 자본주의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
- ㄷ. 자본 축적의 원천은 노동 착취이다.

23)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향락과 낭비를 막는다. 이러한 금욕으로 인해 재화의 획득이 구원의 증표로 정당화되었다. 금욕을 바탕으로 한 영리 활동이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라면, 노동은 근대 노동자의 소명이다.

- ㄱ.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 ㄴ. 금욕적 태도와 자본주의 정신이 양립 불가능하다.
- ㄷ.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정당화 근거는 금욕에서 찾아진다.

24)노동을 '신이 규정한 삶의 최고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이 영리 추구하고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

- ㄱ.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간주하였다.
- ㄴ.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 ㄷ. 소명 정신을 자본 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25)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수고롭게 하고[勞心],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勞力].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다면 항심(恒心)도 없게 된다.

- ㄱ.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ㄴ.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26) 선왕(先王)이 예의(禮義)를 제정한 것은 백성들에게 구별을 알게 하고자 함이다. 농부는 밭을 갈고, 상인은 물건을 팔며, 사대부는 정무(政務)를 담당한다.

- ㄱ. 재화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제할 것을 강조한다.
- ㄴ. 인위적 규범에 따른 직분의 구별을 주장한다.
- ㄷ. 각자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됨을 주장한다.

27)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씬씀이를 줄이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 ㄱ. 직업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ㄴ. 각자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
- ㄷ.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정당화 근거는 금욕에서 찾아진다.

28) 왕공의 자손이라도 예(禮)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에 편입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 예에 합하면 재상이 된다.

- ㄱ. 사회적 역할 분담을 인정한다.
- ㄴ. 후천적 노력을 강조한다.
- ㄷ.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이 정해져야 한다.
- ㄹ. 사회 분업 폐지를 주장한다.

29)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익만 좋아하기에 쉬운 일만을 원하고, 힘든 일을 싫어한다. 그래서 도(道)에 정통한 군자는 사람들마다 가볍고 무거움을 나누어[別] 서로 어울리게 한다.

- ㄱ. 백성들의 직업 활동이 욕망 충족과 무관해야 함을 강조한다.
- ㄴ. 직업 분담에서 예(禮)를 중시한다.
- ㄷ. 사회적 분업을 토대로 한 사회 질서 유지를 중시한다.
- ㄹ. 구성원 각자가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한다.

8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 Zola Guide 민족 관련 개념(구성요소, 기원,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암기해 둘 것. 지난 3년간 안 나왔음. 그러나 교과서와 ebs에는 있으니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Human이지 않음?!

56. 민족주의의 전개

일반적으로 민족 개념은 크게 원초론과 도구론으로 나뉜다. 원초론은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반해, 도구론은 민족의 형성을 서구 근대화의 산물로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논자들은 도구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서구 근대화 과정을 분석하여 민족주의의 출현을 설명하고 있다.

서양에서 민족주의는 근대 국가의 탄생과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서양의 역사에서 근대 이전에는 민족이라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급' 또는 '신분제'로 인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공통된 의식이 생겨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근대 이후 국가 간에 경계선이 생기고, 경계선 안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의 민족에 속해 있다는 의식이 생겨나면서 민족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윤민재, “세계화 시대 남북한 통합의 방향과 과제”, 교학사 교사용 지도서 재인용)

57. [탐구 문제, 교학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새로운 근대 국가에 국민들을 통합시키기 위해 지배 계급들은 박물관을 짓고 유적을 명명하고 국경일을 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선택적인 과정이다. 모든 집단적 경험이 다민족적 가치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험은 배제되고 잊혀지기를 강요당한다.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그 도로에는 기념할 만한 사람의 이름이 붙여진다. 지폐와 동전, 우표에는 역사를 빛낸 얼굴이 있기 마련이다.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모든 발명품의 전시장이 된다.

- 홉스 봄, “1780년대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나) 많은 민족들이 근대 이전의 뿌리로부터 왔으며, 이전 시대에도 민족을 닮은 인종 공동체가 존재했었다. 2000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유대인들은 어떤 시기에는 민족의 성격을 지닌 인종 공동체들로 모여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들 공동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의 형태로 모인 것이다. 다른 민족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단 하나의 인종 공동체로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내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종적 근원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설립이 자신들을 고향으로부터 이탈시켰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과 갈등이 지속되는 이유이다.

- 기든스, “현대 사회학”

(다) 나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聖)으로 숭배하거나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연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 집에서 살기 어려움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 있어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 있어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

- 김구, “백범일지”

30[문제] 다음 글들에 나타난 ‘민족의 기원’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를 비교해 보자.

58. 열린 민족주의(교학사, 17 ebs 수특 재인용)

열린 민족주의는 ‘다양성’과 ‘주체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열린’이란 민족 내부와 외부
를 향한 열림을 의미하고,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민족주의’란 자기 민족의 주체
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열린 민족주의란 민족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를 토대로 다양한 민족,
국가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 민족주의는 민족성에 중심을 두면서도 민족주의를 지
배하는 규율이 민족의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향해 가는 ‘성찰적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를 수용하는 다문화주의와 양립 가능
하다.

[보충] 세계시민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열린 민족주의

세계시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를 하나의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 민족 구성원이 아닌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 강조 ● 인류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함 ● 다양한 민족의 고유성을 무시하여 민족 정체성이 상실됨
배타적 민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족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민족의 이익은 무시함 ● 자민족의 특수성만을 강조함 ● 민족 간 갈등을 일으켜 세계 평화를 해칠 수 있음
열린 민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을 인정함 ● 자민족의 특수성과 인류의 보편성 모두를 중시함 ● 인류의 공존공영을 강조함

9

평화론과 전쟁론

- ☞ Zola Guide (1) 칸트-영구 평화론, 갈등 평화론 확인 · 구분할 것
- (2) 전쟁과 관련된 윤리 확인할 것(현실주의, 정의전쟁론, 평화주의). 새로 추가된 부분임!

59. Kant, 영구평화를 위하여

칸트(Kant, Immanuel 1724~1804)의 저작으로 영구평화(세계적 규모의 법적 상태)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논한 것이다. 이상으로서는 단일한 세계국가(세계공화국)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상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모든 국가가 공화적 법치국가로 되고, 이어 이 국가들 간에 '국제연맹'을 만드는 것이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본문은 평화조약의 체제를 따라서 예비조항(6항) · 확정조항(3항) · 추가조항(2항) · 부록(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예비조항'은 영구평화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일을 여섯 가지를 열거하고 그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2장 '확정조항'은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을 논한 것이다. 제1항은 국내법의 관점에서 각국의 헌법은 '공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2항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국제연맹'(자유로운 제 국가의 연합)의 이념을 말하고, 제3항은 세계 공민법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 상호의 '방문권'의 확립을 요청하고 있다.

추가조항 제1항은 자연의 합목적성(섭리)에 의해 세계평화의 실현이 보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2항에서는 평화의 문제에 관한 철학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충고하고 있다. 부록은 정치와 도덕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칸트의 기본 태도는 도덕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참다운 정치는 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서의 평화론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합의 사상에 준 영향은 크다.

☞ Zola Guide 칸트는 민주정과 공화정을 구분하였으나 칸트가 말하는 공화정이 오늘날의 민주정과 유사함.

[참고] 예비조항과 확정 · 실천 조항

예비조항	확정 · 실천 조항
1. 전쟁 원인의 배제 : 평화조약을 포함해 전쟁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모두 배제한다. 2. 국가를 물건으로 여기는 것의 금지 : 독립한 국가를 다른 나라가 소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3. 상비군의 폐지 : 끝없는 힘의 경쟁으로 다른 나라를 끊임없이 위협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4. 전쟁 국채의 금지 : 대외적인 분쟁을 이유로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5. 내정 간섭의 금지 : 다른 나라의 체제나 통치에 폭력을 앞세워 간섭하지 않는다. 6. 비열한 적대 행위의 금지 : 암살이나 독살을 이용하는 것, 항복 조약을 파기하는 것, 전쟁 상대국의 폭동을 선동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1. 각 국가에 있어서 시민적 체계는 공화정이어야 한다.(공화국의 본질인 법치 국가만이 진정한 평화 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공화국화는 국제 평화 구축에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제 국가의 연맹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세계 국가가 아닌 주권 국가 간의 연맹을 의미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에 한정해야 한다.(사람들의 자유로운 방문을 국가들이 보장해야 한다.)

60. 갈등, 평화론

(1) 미래엔

소극적 평화란 테러, 범죄,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의 개념에 따르면 전쟁 방지와 물리적 폭력의 추방과 같은 직접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빈곤이나 인권 침해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될 때에도 깊은 고통을 느끼고 절망에 빠진다. 따라서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소홀히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적극적 평화이다.

적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은 물론 문화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즉 특정한 사회의 문화나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폭력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까지 간접적 폭력으로 인식한다. 갈등은 폭력의 의미를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평화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해한 기존의 입장과 달리 정의와 인간 존엄성, 삶의 질 등에 바탕을 둔 '인간 안보' 차원으로 평화의 의미를 넓게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문화적 폭력 :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학문 등으로 폭력이 합법화되거나 용인되는 것을 말한다.

** 구조적 폭력 :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사회·정치 구조로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17-6평-18번 제시문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3)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17 ebs 수완 재인용)

폭력은 직접적·물리적 행위만이 아니라 비의도적이고 간접적이며 집합적인 계기, 즉 구조의 요소 또한 포함된다. 직접적 폭력과 달리 구조적 폭력은 의도와 상관없이 천천히 작동해 인간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구조에 내장된 폭력을 의미한다. 언어, 예술, 종교, 이념, 도덕, 가치 등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 폭력의 모든 유형을 관통하며 이들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써 폭력을 은폐한다. 직접적 폭력이 '사건'이고 구조적 폭력이 '과정'이라면, 문화적 폭력은 상당 기간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불변체로서 직접적·구조적 폭력이 발현되도록 하는 폭력의 기저층으로 작동한다.'

☞ Zola Guide 갈등 책 제목이 갈등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줌.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4) 15 ebs 수특

폭력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모독하는 것이다. 폭력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생존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 : 목숨을 앗아가는 폭력으로 전쟁이 대표적인 예이다.

* 복지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 : 생명을 불구로 만드는 폭력으로 경제 제재나 봉쇄가 이에 해당한다.

* 정체성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 : 개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폭력으로 여성이나 소수 민족 등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 자유에 대한 욕구를 모독하는 행위 : 억압과 같은 폭력으로 감금이나 추방이 해당된다.

61. [비상교육] 인도주의적 개입이 다른 주권 국가의 내정 불간섭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인도주의적 개입*이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한 국가 내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라도 그 자체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면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 소말리아, 아이티에서 일어난 비극을 방지하려는 개입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한 국가의 정부가 무력으로 정권을 잡고 모든 반대파를 억압함으로써 유지되고, 바로 그러한 사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지지를 받지 못하며, 자국민들에게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한다면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커다란 고통과 인명 손실을 가져오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Zola Guide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어떤 국가에 의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주의적 간섭, 인도적 간섭이라고도 한다. -위키백과

62. [비상교육] 정당한 전쟁의 조건

- 아우구스티누스 : 이웃을 사랑하라는 크리스트교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악을 제어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아퀴나스 : 적정한 권위, 정당한 원인, 바른 의도가 있어야 한다.
- 그로티우스 : 정당한 원인, 상응성*, 성공 가능성, 공적 전쟁 선포, 합법적 권위, 최후의 수단이 있어야 한다.

*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비용은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이나 혜택에 상응해야 함

63. 왈처의 정의 전쟁론

(1) 16 ebs 수완(“전쟁과 정의”)

* 미국의 전쟁은 부정의한 것이다. 이라크의 무장 해제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당한 목표이지만 전면적 전쟁이 아닌 다른 수단을 동원해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 개전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전쟁이 부시 미 행정부가 확인했던 두 가지 중요한 약속에 의거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첫째,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그 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후의 이라크 정권이 이라크 인민의,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이라크 인민을 위한 정부라는 점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입에 반대하는 근거는 강력하다. 우리는 반제국주의와 자결주의에 입각해 개입에 반대한다. 비록 자기 결정의 과정이 평화적이거나 민주적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이를 존중하고자 한다. …(중략)… 그러나 불간섭주의는 절대적인 도덕 원칙이 아니다. 때로는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용인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인도주의적 개입이 많이 남용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과 고통이 극심하고, 그 지역의 어떤 세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도덕적으로 필요하다.

(2) 우리는 전쟁을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전쟁은 대체로 예외 없이, 예측할 수 없고 의도되지 않은, 그리고 피할 수도 없는 참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최후’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조건이지 실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최후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다른 무언가를 해보는 것, 혹은 이미 해보았던 것을 다시 시도해 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최후’라는 관념은 경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개망나니의 고삐를 풀기’ 전에 최선을 다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경고는 필요하다.

-“전쟁과 정의”

(3) 가톨릭 주교들을 비롯한 종교계 비판가들은 걸프전이 부정의하다고 주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논의했고, 정의로운 전쟁의 기준에 비추어 그 전쟁이 정의로울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의 이론의 대부분을 폐기해 버리고자 했다. 그들 모두는 내가 보기에 위험하고도 잘못된 주장, 즉 현대 세계에서 어떠한 전쟁도 결코 정의로운 전쟁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 그들은 이를 위해 정의로운 전쟁 이론의 원칙을 새삼 강조한다. 전쟁은 반드시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원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덕적 분별에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걸프전은 그 원칙의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 이라크의 침공이 급작스럽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전쟁은 쿠웨이트인들에게 최초의 수단이 될 수 있었고, 동맹국과 우방국들은 쿠웨이트인들의 방어 전쟁에 정당하게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이라크가 항복하지 않자 전쟁은 비록 “최후의” 수단은 아니었지만 분명 정당한 수단이 되었다.

-“걸프전에 있어서의 정의와 부정의”

☞ Zola Guide 자료 (3)은 현자의 둘 블로그 자료를 참고한 것임. 좋은 자료를 찾아주신 현자의 둘째 감사드립니다.

64. 국제 정의에 대한 롤스의 견해(“만민법”)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국민들에게 익히 알려진 전통적인 정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만민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이들의 자유와 독립성은 다른 만민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2. 만민은 조약과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3. 만민은 평등하며 자신들을 구속하는 약정에 대한 당사자들이다.
4. 만민은 불간섭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5. 만민은 자기방어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자기방어 이외의 이유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는 없다.
6. 만민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7. 만민은 전쟁 수행에 있어 특별히 규정된 제약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8.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및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 하에 살고 있는 다른 만민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 Zola Guide 5~7번이 정의 전쟁론과 관련된 부분임. 하지만 외울 것은 아님. 롤스 자신이 왈처의 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왈처와 헛갈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임.

10

해외 원조

☞ Zola Guide 기본 지식 정리해 두고 나머지는 독해로 넘어가면 쉽게 풀린다. 기본 지식은 교과서와 기출 선지 그리고 기출 ‘제시문’에 한정된다. 이외의 지엽적인 선지와 설명은 집착할수록 더 헛갈리니 조심할 것.

65. [천재교육] 우주선이냐? 구명정이냐?

(가) 우리는 지구라는 우주선을 함께 타고 있다. 세계 자원의 유한성이 명확하게 자각되고 있는 오늘날, 무한한 개발을 꿈꾸어 왔던 과거의 카우보이 경제를 버리고 태양광 이외는 외부로부터 유입이 없이 모든 것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주선 경제”로 이행해야 한다. -보올딩, “우주선 지구의 경제”

(나) 우리가 타고 있는 것은 우주선이 아니라 해상의 구명보트이다. 정원이 60명인 구명보트에는 부유한 50명이 타고 있고, 바다에는 가난한 사람들 100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자. 만일, 100명 모두를 승선시키면 보트는 침몰하여 모두가 죽게 된다. 또, 10명만을 승선시킨다면, 그 10명을 어떻게 선정하며 나머지 90명에게는 뭐라고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결국, 보트에 누구도 태우지 않고 구명보트의 현 탑승 인원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된다. -하딘, “구명정에서 살아남기”

☞ Zola Guide 위 두 주장은 ‘해외원조’ 뿐만 아니라 ‘환경 윤리’에도 적용된다.

66. [비상교육] 해외원조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롤스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받는 다른 국가의 국민들을 돕는 것을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조의 목적은 가난한 개인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여건의 사회’의 체제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도움으로써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부유한 국가의 부를 불리한 여건의 사회로 이전하거나 재분배하는 것을 원조 의무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한편 싱어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도움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도움을 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를 가진다고 본다.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점에서 내 이웃을 돕는 것과 먼 거리에 사는 외국 사람을 돕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도덕적인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굶주림이나 죽음을 방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키므로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러므로 민족,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 원조를 하는 것이 윤리적 의무라는 것이다.

67. [교사용 지도서] 롤스(국제주의)와 싱어(공리주의, 세계시민주의)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적이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지,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해외 원조 문제에서 국가적 경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제주의’입장이다. 이러한 롤스의 입장에 대해 그가 “정의론”에서 언급했던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보편적으로 확대하여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고,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무지의 베일’을 국제적 정의에서는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싱어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 공리주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 중요한 경계나 차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롤스의 입장을 국제주의 모델이라고 비판하면서 ‘세계 시민주의’관점에서 지구적 차원의 분배를 주장한다. 이러한 싱어의 입장은 지나친 희생과 손실을 요구하는 너무 강한 도덕적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8. [교과서+ebs] 해외 원조에 대한 의무적 입장들

(1) 토마스 아퀴나스

재화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잉여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자연법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주어야 한다.

(2) 싱어

① 자기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도 남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의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단체에 자신의 소득 중에서 최소한 1%를 기부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나누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부액이지 최적의 기부액은 아니다.

②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③ 내가 강연을 하러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가 얇은 연못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상상해 보라. 나라면 쉽게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신발과 바지에 흙탕물을 뒤집어써야 한다. 그러면 나는 집에 가서 신을 바꿔 신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할 것이다. 강연은 취소해야 할 것이며, 또 신발은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일의 가치보다 그런 작은 고려 사항들을 더 중시한다면 그것은 추한 일이 될 것이다. …… 내가 돕는 사람이 나한테서 10야드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의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1만 마일 떨어져 있는 벵골인인지가 나에게서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롤스

①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입헌적 자유주의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원조의 목적은 그러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② 만민에게는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다른 만민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국제 원조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라고 부르는 심각한 정치·사회 문화적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일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 국가들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다.

③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duty)가 있다. 그렇지만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하거나 최선인 방법이 사회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분배 정의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나 목표, 차단점(cut-off point)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넘어서게 되면 원조가 중단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을 겪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모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④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 국민들에게 익히 알려진 전통적인 정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1. 만민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이들의 자유와 독립성은 다른 만민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

...중략...

8.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정치 및 사회 체제의 유지를 저해하는 불리한 조건하에 살고 있는 다른 만민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 Zola Guide 룰스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만민)가 자유로운 또는 적정 수준의 체제를 확립할 때, 평화와 정의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적인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들에 질서 정연한 만민들이 합의하고 정치적·사회적 요인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해서는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한다면 국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69. 절대 빈곤과 민주주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은 절대 빈곤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파악한다.

세계적으로 비참한 기근의 역사를 볼 때,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한 민주 독립국가에서는 본격적인 기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년 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및 그 밖의 독재국가에서 발생한 기근이나, 1930년대 소련 스탈린 정권 치하의 기근, 1958년에서 1961년 사이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따른 중국의 기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식민지 시대의 아일랜드와 인도의 기근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나라들은 대체로 의회에 야당 세력이 없었고, 복수정당제에 의한 선거도 치러지지 않았으며 언론의 자유도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데도 심각한 오류를 지닌 정책들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지속되었다. 현대의 대표적인 기근인 북한과 아프리카의 기근도 이와 똑같은 경우이다.

반면에 1973년 인도, 1980년대 초반의 짐바브웨와 보츠와나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가뭄이나 홍수, 그밖의 자연재해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기근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야당과 자유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근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

* 절대적 빈곤 : 생활필수품을 획득할 수 없어 최저의 생활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미래엔)

31)[문제] 제시문에 근거하여 해외 원조시 주의할 점을 말하시오.

11

환경 윤리

☞ Zola Guide (1)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너네들의 암기 내용

환경윤리	도덕 행위자	도덕의 범위/대상	논거	사상(가) 표현
인간 중심주의	인	인	이성	(칸트) 직접적 의무-인간 간접적 의무-인간 외
동물 중심주의		인 동	쾌고 쾌고+a+b+...	싱어-공리주의, 동물해방론 레건(삶의 주체)-의무론, 동 무권리론
생명 중심주의		인 동 식	삶에 대한 의지	테일러(목적론적 삶의 중심)- 기본 관점 및 4대 의무
생태 중심주의		인 동 식 무	상호 연관	생명(생태, 대지)공동체, 대지윤리

(2) 사상가를 외울려면 확실하게 외워라.

[아리스토텔레스/아퀴나스/베이컨/데카르트/칸트/맥클로스키/패스모어/아퀴나스/노턴/(라메트리)/레건/싱어/벤담/밀/슈바이처/테일러/레오폴드/심층생태론(네스)]

관점/입장	제1 순위	제2 순위	이런 애도 있음
인간 중심	아리스토텔레스/칸트/데카르트/ 패스모어	맥클로스키/베이컨	아퀴나스/(라메트리)/ 노턴
동물 중심	레건/싱어		벤담/밀
생명 중심	슈바이처/테일러		
생태 중심	레오폴드	심층생태론	

교과서 중심

70. 인간 중심주의 1

(1) 미래엔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출발한다. 이분법적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바라본다. 이러한 세계관은 인간을 자연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인식한다.

또한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도구적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를 강조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베이컨과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인간에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과학의 목적이 자연을 정복해 인간의 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지만 자연은 의식없는 단순한 물질, 즉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기계론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자연 과학의 목표가 인간을 자연의 주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2) 천재교육(일부 각색)

인간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다. 자연의 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되었고,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도구적 자연관'이 등장하였다. 도구적 자연관은 근대의 철학적 관점과 자연 과학의 발달로 더욱 강화되었다. 먼저, 근대 철학이 지향하는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에 의한 정복의 대상이며, 인간의 욕구와 편의를 위한 도구적 가치만을 지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연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은 자연을 기계론적인* 인과 관계로 파악하였다. 자연은 정신이 없는 물질적 대상에 불과한 것이고, 자연의 모든 생명 현상은 물리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와 같은 기계론적이고 환원론적인 자연관은 자연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제거하고, 자연을 생명이 없는 입자로 간주함으로써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자연을 바라보게 하였다.

도구적 자연관처럼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자연을 순전히 인간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평가하는 견해를 인간 중심주의 윤리라고 한다.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자연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 상호간의 윤리를 중시한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만 간주한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연의 어떤 대상보다도 우월한 존재로서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연을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Zola Guide 기계론적 자연관

세계와 자연의 모든 과정이 필연적이고도 자연적인 인과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의 이성으로 기계적 인과 관계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 자연의 운동과 변화를 기계적 인과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을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로만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자연을 스스로 성장과 발생을 거듭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파악하는 유기적 자연관과 대립됨

71. 인간 중심주의 2 -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 Zola Guide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안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도 공부해야 함을 의미함. 그리고 그런 공부는 '명칭한' 공부일 수 있음. 여러분은 그냥 '인간 중심주의'를 제대로 확인하면 그만임!

(1) 미래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윤리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인식하에 자연을 존중하면서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여전히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본질적으로 더 가치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연도 단순히 도구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점에서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를 극복한다.

(2) 비상교육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기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합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도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기는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는다.

이와 달리 자연이 내재적 가치를 거부하지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연 보존을 옹호하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첫째,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현재 세대가 이기심을 줄이고 자연을 잘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적극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연에 대한 심미적 인식은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경외하고, 생명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셋째, '감각적 선호'보다는 '성찰적 선호'를 중시한다. 즉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이성적으로 숙고된 판단을 중시함으로써,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다면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을 버리지 않고서도 자연 친화적 삶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넷째, 인간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복지를 누리기 위해 생태계가 건강하게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연 파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내재적 가치 : 자연이 인간의 이익 관심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객관적 가치
- 본래적 가치 : 자연 그 자체로는 가치를 가지지 못하지만, 인간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주관적 가치로서 그 자체가 목적으로 추구되는 가치
-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 노턴에 따르면, 강경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이 인간의 욕망, 즉 감각적 선호를 만족시킬 때만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는 감각적 선호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식별하는 성찰적 선호를 만족시킬 때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참고] 18 ebs 수완

노턴에 의하면, '강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 대상의 가치가 인간의 '감각적 선호'에 기초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감각적 선호란 한 개인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 의해서 적어도 일시적으로 갖고 있거나 표현하는 어떤 욕구나 필요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익 관심을 단순히 느낌(감각)에 따르는 선호나 욕구의 문제로 이해하기 때문에 성찰이나 이익의 제기 같은 심사숙고와는 거리를 두게 되며, 단지 사람들이 단순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두는 경제적 관점을 채택하게 된다. 반면, '약한 인간 중심주의'는 비인간 존재와 자연 대상이 감각적 욕구는 물론, 심사숙고와 이성적 검토를 바탕으로 성찰적 선호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성찰적 선호는 인간의 욕구나 필요가 사려 깊은 검토에 기초하고, 이성적으로 채택된 세계관과 조화를 이루며, 건전한 형이상학에 의해서 구체화되며, 과학적 이론과 미학적 가치, 그리고 도덕적 이상에 토대를 둔다는 점을 강조한다.

☞ Zola Guide 수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노턴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는 교과서를 거의 따온 것에 불과하다. 노턴의 분류법이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또는 학계의 정립된 분류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지식으로 확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Zola의 최종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두 용어-내재적 가치vs.본래적 가치, 강경한vs.온건한-는 문제를 보고 구분할 경우에만 활용하자!]

32)[15-3교 활용] 갑이 긍정할 내용 2개와 을이 긍정할 내용 2개를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단, 중복되는 보기가 있을 수도 있음)

갑 : 인간이 진정으로 영리하다면 자원으로서의 자연을 가능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자연을 파괴하기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을 : 한 세대가 자기 세대만을 위하여 이기적 욕망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미래 세대의 생존 근거인 환경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기>

- ㄱ. 인간에게는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 ㄴ. 환경 보존을 위해 인류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 ㄷ. 자연의 모든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ㄹ. 인간을 위한 자연보호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갑-(,) 을-(,)

72. 동물 중심주의

(1) 미래엔

동물 중심주의 윤리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동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 해방론’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 권리론’이다.

(2) 비상교육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 인간 중심주의라면,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들도 내재적 가치나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은 탈인간 중심주의이다. 이는 다시 개체론적 탈인간 중심주의와 전일론적 탈인간 중심주의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동물 중심주의는 전자에 해당한다.

동물 중심주의는 개별 동물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담의 영향을 받은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이익 관심의 필요조건으로 간주한다. 그는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이익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익 관심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동물의 이익 관심이라고 해서 인간의 이익 관심보다 저급한 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인종 차별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종 차별주의를 범하는 것이 된다.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동물의 ‘복지’를 강조하는 싱어와 달리, 의무론의 입장에서 동물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성장한 포유동물도 삶의 주체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냥감이나 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레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인간은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다른 포유동물은 기쁨과 통증을 느끼는 감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도덕적 무능력자(moral patients)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Zola Guide 레건때문에 논의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복잡한 것, 특히 논쟁이 되는 것은 지식형으로 나오지 않는다!

- 이익관심 : 어떤 생명체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 연장하고자 하는 욕구(생명체의 존속과 번성 능력)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토끼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 이익 관심이 있으며, 장미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날카로운 가시를 만드는 데 이익 관심이 있다.

(3) 교학사

잘 알려진 동물 해방론자인 싱어에 의하면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족주의에 의거한 편견이다.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은 동물의 이익을 해아리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그의 고통을 줄여주고 쾌락을 증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다. 이것이 싱어가 주장하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거하여 그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과 동물의 대량 사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보다 큰 효용성을 위해서라면 이익 계산에서 뒤쳐지는 동물의 희생을 용인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 싱어는 완화된 인간 중심주의자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공리주의에 입각한 싱어와는 달리 레건은 동물 권리론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욕구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동물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동물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래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는 다른 것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적 존재로 대우받아야 하므로 동물들은 그 고유한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간의 동물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레건은 실험, 매매, 사냥, 식용화, 애완 등 동물에 대한 행위들을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비판한다. 그가 이러한 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물 복지나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레건에 의하면, 동물 실험을 통해 지식이 진보하고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해도 동물들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

73. 생명 중심주의

(1) 미래엔

생명 중심주의 윤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기준이 생명이라 보고, 도덕적 고려 범위를 모든 생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므로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 중심주의 윤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사람은 테일러이다. 그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본다. 모든 생명체는 의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기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존재이다. 예를 들어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태양을 향하며, 카멜레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위 환경과 동일하게 피부색을 바꾼다.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필요와 관계없이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본래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선을 지니는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교학사+천재교육 각색

생명 중심주의의 연원은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에 대한 외경을 도덕의 근본 원리라고 주장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고양하는 것은 선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것은 악으로 여긴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생명은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생명의 동등성'은 생명 외경 사상의 기본 전제이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연적이고 불가피하게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른바 '생명의 차등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결국 슈바이처는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자 애쓴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고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본래적 가치, 즉 생명 안에 스스로 품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생명 사상의 연장에서 생명 중심주의 윤리를 발전시킨 사람은 테일러이다. 그는 우리가 유아나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온전하게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되는 것처럼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도 인간의 행동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테일러에 의하면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존중은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이다. 그는 생명 중심주의를 특징짓는 신념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이 지구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둘째, 모든 생명체 각각의 생존은 이롭거나 해로운 변화를 포함하여 자신이 처한 물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셋째, 모든 유기체 각각은 자기 방식대로 자체적으로 좋음을 추구하는 개체이다. 넷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생명 중심주의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각각의 생명체이지 공기나 물, 대지나 하늘 등의 생태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생명 중심주의자들은 생명체에 해를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기나 물과 같은 무생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할 뿐 그 자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3) 천재교육

테일러가 말하는 자연에 대한 존중은 해치지 않을 의무, 개입하지 않을 의무, 성실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포함한다. 해치지 않을 의무는 생명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라는 것이다. 개입하지 않을 의무는 인간이 생태계에 속하는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의 의무는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낚시하고, 덫을 놓는 등의 야생 동물에 대한 기만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살아 있는 생명체에 해로움을 준 인간이 이들 생명체의 상태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74. 생태 중심주의

(1) 비상교육

동물 중심주의와 생명 중심주의가 개체론적 관점이라면, 생태 중심주의는 전일론적 관점이다. 전일론적 관점은 탈인간 중심주의 윤리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무생물, 종, 군집 나아가 생태계 전체로까지 확대한다. 생태 중심주의는 개별 생명체보다는 상호 의존성에 바탕으로 둔 생명 공동체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

생태 중심주의는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는 전일론적 관점에 따라 경계를 확장하여 그 속에 토양, 물,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대지까지 포함시키고, 인간의 지위를 지배자에서 생명 공동체의 단순한 구성원으로 바꿨다. 그는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향이 있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라는 원리로 대지의 윤리를 요약하였다.

나아가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보다 더 강한 실천을 강조하는 심층 생태주의는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환경 오염의 예방이나 경제 개발 속도의 조절과 같은 피상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세계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바뀐 심층적 세계관에 따른 규범은 자아실현과 생명 중심적 평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서의 자아실현이란 인간이 인간 이외의 자연까지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일체화를 경험할 때 달성되는 ‘큰 자아실현’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명 중심적 평등이란 생명 공동체의 모든 유기체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 속에서 평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심층 생태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모든 자연적 존재들과 상호 평등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2) 교학사

레오폴드는 인간을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정의하고 공동체의 범위를 식물과 동물, 토양과 물을 포함하는 대지로 확장한다. 대지의 윤리에서 인간은 공동체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범한 한 구성원이다. 인간과 자연을 모두 포괄하는 유기체적 생태 공동체 안에서 개체인 인간에게 전체 공동체의 건강한 유지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있다고 믿는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의 고유한 가치와 동물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주장한다. 생태 중심주의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인간이나 자연의 다른 생명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지구 환경의 구성원일 뿐이다. 둘째, 인간은 전체 생태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전체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 안의 모든 생명은 그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어 갖고 있으며 자연은 각 부분의 상호 작용과 교환에 의해 평형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 전체 생태계는 다양하며 다양성은 생태계의 혼란이 아니라 복잡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자연의 모든 생명은 각각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을 추구한다.

제시문 모음(출처는 생략)

☞ Zola Guide 사상들의 제시문들이 ‘왜(논거, 이유)’ 인간/동물/생명/생태 중심주의에 속하는지 독해 point를 확인할 것!

A. 인간 중심주의

75. 아리스토텔레스

(1)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2)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가축이나 식량이 기타 용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야생 동물도 그러하다. 즉 야생 동물은 식량이나 다른 기타의 용도, 즉 의복이나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76. 아퀴나스

사물의 질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은 모두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모두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에게 동정 어린 감정을 나타낸다면, 그는 그만큼 더 동료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다.

77. 베이컨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자연은 구속되어야 하고, 과학자의 목적은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78. 데카르트

(1) 신체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분할될 수 있지만 정신은 어떤 경우에도 분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체와 정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정신, 즉 사유하는 실체로서의 나 자신을 고찰할 때 나는 내 안에서 어떤 부분도 구분할 수 없으며, 나 자신을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 정신 전체가 몸 전체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의 발이나 팔 또는 다른 신체 부분이 절단될 때에도 나의 정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인식한다.

(2)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절대로 거짓된 것으로서 버리고 이렇게 한 후에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신념 속에 남지 않을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중략) … 그러나 금방 그 뒤에 그렇게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동안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무엇이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하여, 회의론자가 제아무리 터무니없는 상정을 모두 합치더라도 이것을 흔들여 놓을 수 없음을 주목하고서, 나는 주저 없이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 1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이성적이지 않은 존재는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 물질적 육체와 비물질적 영혼의 혼합체인 인간과 달리, 동물은 의식이 없는 기계일 뿐이다. 동물도 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인간이 아닌 존재의 ‘감각’이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경험도 가능하지 않다.

[참고, 천재교육] 근대 합리론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선언을 통하여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을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은 인식 주체인 인간이 인식 대상인 자연을 이용하고 정복하는 사유의 출발점으로 간주되었다.

79. 칸트

(1)

자연은 비록 무생물이지만 아름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감정은 도덕 자체는 아닐지라도 도덕성을 매우 증진하며, 적어도 도덕성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감성의 기분이랄 수 있는데, 자연을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은 그러한 감정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감수성의 성향이란 심지어는 사용 가치에 대한 어떤 이익 관심과도 무관할지라도 아름다운 수정의 형상, 묘사하기 어려운 식물들의 아름다움과 같은 어떤 것을 사랑하는 성향을 말한다.

동물은 비록 이성 없을지라도 살아 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훨씬 더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것을 삼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고통이라는 공유된 감정을 무디게 하며, 사람 간의 관계의 도덕성에 참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키고 점차 그 소질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픔 없이 즉각적으로 동물을 줄일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일을 시키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단순한 탐구를 위해서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실험은 이러한 실험이 없이도 정해진 목적을 달성될 수 있다면 금지되어야 한다. 마치 말이나 개가 집안의 한 식구인 것처럼 나이 든 말이나 개의 오랜 노고에 대한 감사는 이들 동물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2) 인간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목적 자체로서 존재하고 이러저러한 의지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또한 다른 이성적 존재를 향한 모든 행위에 있어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상대적 가치밖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불린다.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이성적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조물과 관련하여 볼 때, 동물들을 거칠고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인간은 동물을 죽여야 할 경우 가능한 빨리(고통이 없이) 죽여야 하며 동물에게 일을 시킬 경우 그 동물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억지로 하도록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동물들과 관련된 인간의 의무는 간접적인 의무에 속한다. 직접적인 의무는 항상 오직 인간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80. 맥클로스키

동물에게 권리가 부여된다고 할 경우 동물이 자기의 도덕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지식도 가질 수 없다. 동물은 권리를 행사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지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Zola Guide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축을 인간 중심주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글임. 맥클로스키가 나온다고 해서 고난도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임. 독해와 인간 중심주의 개념으로 해결됨.

81. 패스모어

기독교건 공리주의건 서양의 전통적인 도덕적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의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폐기물을 바다나 대기 중에 버리는 일, 생태계의 파괴, 아이를 많이 낳는 일, 자원의 고갈 등이 동료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정도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어떤 것의 보충 없이도 우리의 생태적 관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 -데자르탱, “환경윤리(제5판)”

☞ Zola Guide 글을 보면 ‘전통적인 도덕으로 생태계 보호가 충분하다’가 결론이다. 그리고 전통적 도덕은 ‘타인(미래 또는 현재의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는 것이다. 이는 도덕의 범위가 인간(현재세대와 미래세대)에게 한정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속한다.

B. 동물 중심주의

82. 싱어

☞ Zola Guide 0100샘이 생활과 윤리에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수학과 다르다고 가르침(적어도 2017년 혹은 2018년 초반 강의까지는). 절대로 다르지 않음! 다음 두 사이트 중 아무 것이나 참고할 것.

<https://orbi.kr/00016843840>

<https://cafe.naver.com/suhui/19867227>

(1) 만약 한 존재가 고통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기준이 유일하게 옹호되는 이유이다. ... 쾌고 감수 능력이 이익관심(interest)을 갖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것이야말로 누군가 이익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해질 수 있기 위해서 만족되어야 할 조건이다. 어린이가 길가의 돌멩이를 발로 찼다고 해서 돌멩이의 이익관심이 손상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돌멩이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쥐는 발에 차이 지 않을 이익관심을 갖는다. 발에 차인다면 쥐는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2) 산업 사회에서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생각해 보려 한다면, 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인간의 이익과 먹혀지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정말 균형을 이루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를 때,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게 될 동물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기 어려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를 채식주의자들의 생활 방식에 가까운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

☞ Zola Guide 싱어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면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봄. 싱어는 동물 실험이나 의식주 윤리에서도 출제 가능함.

(3) 평등이라는 기본 원리는 평등한 또는 동일한 처우(treatment)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리는 단지 평등하게 배려하길 요구할 따름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을 평등하게 배려한다는 것은 그들을 서로 다르게 처우하며, 그들이 서로 다른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4) 평등의 원리는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갖건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대략적이거나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거기에서 고려해야 할 바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쾌고 감수 능력(limit of sentience, 비록 정확한 약어는 아니지만 고통 그리고/또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간략하게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은 다른 존재들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우리가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가 되는 것이다.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예컨대 피부 색과 같은 다른 특징을 경계 기준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83. 레건

(1) 믿음과 욕구를 갖고, 지각과 기억을 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고, 선택적 및 복지적 이해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시간상의 변화에도 심리적·물리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익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subject of a life)이다.

☞ Zola Guide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center)이고 레건은 삶의 주체(subject)임. 교육청 문제에 오류가 있는 문제가 있음. [참고] <https://orbi.kr/00013517546>

[참고]는 제가 쓴 글은 아님. [참고]에서 제(Zola)가 언급된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음. 핵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함.

그런데 Zola 라는 분이 영어 원전에서 테일러는 ‘center of life’라고 했고, 레건은 ‘subject of life’라고 했다고 댓글을 달더군요. 그때부터 영어 원전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테일러는 단 한 번도 ‘subject of a lif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렇다면 데자르댕 번역서에서 ‘목적론적 삶의 주체’라고 한 것(단 한 군데에서만 그랬지만)은 오역임이 분명합니다(저는 오역 보다는 오타, 오기로 봅니다.). center를 ‘주체’로 번역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번역도 지 끌리는 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 식용 송아지의 비참한 모습은 애처롭고 마음 아프게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릇된 것은 고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니고, 박탈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때때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며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혼동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를 위해 동물을 먹을 수 있고, 외과수술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스포츠나 돈을 위해 사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즉 동물을 우리의 자원으로 보는 것을 허용하는 체제다.

☞ Zola Guide 레건이 싱어와 다른 점을 잘 보여주는 글임. 동물 윤리가 ‘고통’의 문제로 보는 싱어의 입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레건의 입장임.

C. 생명 중심주의

84. 슈바이처

(1)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스스로에게 주는 생명에 대한 동일한 외경을 살려고 애쓰는 모든 존재에게 주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낀다. 인간은 존재의 생명을 경험한다. 그는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촉진하며,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생명에게 고귀한 가치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것을 좋은 것[선(善)]으로 수용한다. 반면 악(惡)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 생명을 저해하는 것, 그리고 발전 가능한 생명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의 절대적이면서 근본적인 원리이다.

(2)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 있는 어떤 것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은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도 묻지 않는다.

☞ Zola Guide 생명의 동등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제시문임.

(3) 수많은 방식으로 나의 존재는 다른 생명과 갈등에 빠진다. 나는 생명을 죽이고 해칠 수밖에 없다. 내가 외딴 오솔길을 걸을 때, 내 발은 그 길에 사는 작은 생명체를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한다. 나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내 존재를 해치는 존재로부터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 나는 동물과 식물을 죽임으로써 나의 영양을 섭취한다.

☞ Zola Guide 생명의 차등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제시문임.

(4) 자기 들판에서 소에게 줄 건초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풀을 뜯은 농부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길가에 핀 꽃을 꺾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꽃을 꺾음으로써 그는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생명에게 그릇된 짓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 Zola Guide 사랑의 원칙을 강조하는 제시문임.

85. 테일러

☞ Zola Guide 테일러 조심할 것. 생태 중심주의와 혼란의 여지가 있음. 아울러 아리스토텔레스(인간 중심주의)의 목적론과도 비교됨.

(1)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teleological center of life)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 주는 향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워진 유기체의 작용이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2) 예를 들어 우리는 나비의 이해관계나 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그리고 아마도 나비가 어떤 것을 선호하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당장에 부정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나비의 일생을 이해하게 되고, 나비가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건을 알게 된다면, 그것에 이로운 것이 무엇이고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단세포의 원생동물과 같은 단순한 동물 유기체들을 고려할 때조차도, 그것에 이롭거나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어떤 환경 변화가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그리고 어떤 물리적 환경이 좋거나 나쁘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가 이러한 유기체들에 관한 지식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더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 Zola Guide 싱어와 헷갈릴 수는 부분임. '유기체(생명체)에 관심을 가져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3) 생명 중심적 기본 관점

- 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다.
- ② 지구의 자연적 생태 체계들은 긴밀하게 연결된 복합적인 네트워크(연계망)이다.
- ③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고유한 개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④ 인간은 본질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4)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 ① 악행 금지(불침해) :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어떤 생명체도 해치지 말아야 함
- ② 불간섭 :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함
- ③ 성실(신의) :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 낚시하거나 덫을 놓는 등의 기만 행위를 금지해야 함
- ④ 보상적 정의 :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함

D. 생태 중심주의

86. 레오폴드

(1) 우리 시대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이른바 ‘비동물계’를 살아 있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리고 우리 중 상당수는 지구와 인간 사이에는 지구에 대한 기계적인 이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깊고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껴왔다.

(2) 철학은 도덕적으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서는 지구를 파괴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다. 즉 ‘죽은’ 지구는 우리가 그 자체 직관적으로 존중하는 생명적 성질을 소유하는 유기체라는 것이다.

(3) 대지 윤리는 알기 쉽게 말하자면,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 흙, 물, 식물, 동물, 곤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한다.

(4) 대지 윤리는 인간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동료나 전체 공동체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대지 윤리는 인간에게 자원들(흙, 물, 식물, 동물 등)의 사용, 권리, 변화를 금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 생존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5) 땅과의 윤리적인 관계가 땅에 대한 사랑, 존경, 감탄, 그리고 땅의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여기서 가치가 의미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가치, 즉 철학적 견지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다.

(6) 어떤 것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integrity), 안정성(stability), 아름다움(beauty)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면 그르다.

☞ Zola Guide 레오폴드 윤리의 핵심 문장이다. ‘생명 공동체’라고 외우지 말고 ‘생명공동체의 온전함(안전성, 아름다움)’으로 외워라. 전일론적 관점을 보여주는 문구이다. ‘공동체의 온전함(통합성)’은 개체론자에게는 관심 1순위가 아니다. 개체론자에게는 개별 생명체가 관심 1순위이다.

87. 심층 생태주의의 주요 원리(네스와 세션스)

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번성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체의 가치는 협의의 인간의 목적에서 나오는 유용성과 무관하다.

②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번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③ 인간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④ 현재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과도하며,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⑤ 인간의 삶과 문화가 번성하려면 인구가 근본적으로 줄어야 한다. 자연계의 번영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⑥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조성하려면 정치적 변혁이 필요하다. 정치적 변혁을 통해 경제, 기술, 이데올로기의 기본 구조를 바꿀 수 있다.

⑦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생활수준의 향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갖는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큰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한다.

⑧ 이러한 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은 필요한 변화를 위해 각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33[교과서 연습] 라메트리의 인간 기계론의 관점을 인간에게 적용할 때 생기는 부작용은 무엇일까?

인간은 기계다. 인간의 행동, 언어, 사고, 감정, 습관, 신념 등은 모두 외적인 영향과 인상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인간은 사실상 입구와 출구, 톱니바퀴와 관, 원자 등이 결합한 복잡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무엇 하나 발견할 수 없고 발명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일어날 뿐이다. 인간은 기계이며, 이 세계는 다양하게 변형된 단 하나의 근본 재료만이 존재한다. - 라메트리(La Mettrie, J. O.)

[교과서] 로크와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라메트리는 1747년 데카르트의 “동물 기계론”을 인간에게 적용하여 “인간 기계론”을 간행한다. 이 책에서 그는 동물은 인간의 영역에 가깝기보다는 정교한 장치로 조작되는 일종의 자동 기계에 가깝다고 본 데카르트의 기계론을 이어받는다. 라메트리는 인간도 동물과 같이 육체와 고도로 정교한 본능만을 가졌을 뿐 동물이 갖지 못한 정신이라는 실체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실체란 실은 뇌의 분비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적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그는 인간이란 스스로 태업을 감거나 푸는 한 대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추가 자료]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개체론과 전이론 입장 비교

-생명 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분석(윤혜진, 철학탐구 28집)

☞ Zola Guide ‘생명 공동체’ 관련한 테일러(개체론)와 레오폴드(+심층 생태주의, 모두 전체론)의 차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일 것 같네요. 일부 표현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고려하여 ‘개체군’이라는 개념어는 삭제하였습니다(Zola가 임의적으로 추가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 논문에서 ... 생명 공동체가 그 속에 포함된 개체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개체론과 생명 공동체를 개체들의 총합 이상이라고 보는 전체론을 철학적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 (중략)...

개체론적 관점에서는 ... 단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생명체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욕구 같은 독자성이 생태학적 이해를 결정하는 최우선적 방책이 된다. 개별 생명체에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체성과 특이성인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개별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와 독립된 존재로 인식된다. 이런 까닭에, 생명 공동체 개념을 설명하면서, 개별 생명체가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하나의 전체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전체론적 범주를 언급하지 않고 단지 생명 공동체가 개별 생명체의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 개체론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론적 관점에 서면, 개별 생명체의 이익이 아닌 생명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고려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환경윤리 차원의 도덕적 우선성을 결정하는 것 역시 생명 공동체 전체의 이익인데, 이것은 언제나 개별 생명체의 이익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개별 생명체의 이익과 필요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익은 흔히 생명 공동체의 필요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 공동체는 ... 전체적으로 안정 상태에 이른다는 점에 관한 생태학적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항상성 이외에도-안정상태를 의미함(Zola 주)) 종의 안정성, 혼돈으로부터의 회복 능력과 같은 것들은 전체론적 관점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다.

12

사회 정의 - 분배 정의

☞ Zola Guide (1) 윤사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 윤사보다 더 어렵기도 함. 아리스토텔레스-노직-롤스-공리주의-사회주의(마르크스) 비교 주이할 것. 단 개별 사상가의 입장을 확실하게 알면 비교하는 것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됨!

(2) 기출 제시문과 선지가 아주 무지 억수로 중요함!

34)[Zola 조선어 확인]

- ① 불평등함은 정의(공정)인가, 부정의(불공정)인가?
- ② 차등 분배는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 ③ 균등 분배는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 ④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 ⑤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 ⑥ 불평등한 결과를 없애고자 하는 것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 ⑦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사회인가, 불평등한 사회인가?

88.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 분배적 정의

서로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사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균등한 사람들이 균등하지 않은 사물을 받거나, 균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균등한 몫을 차지하는 경우에 분쟁과 불평이 생긴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마땅한 상을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분배에서의 옳음은 어떤 의미에서든 가치에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해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배에서의 옳음이란 일종의 비례라고 할 수 있다.

(2) 시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에서의 옳음은 분배적 정의와는 다르다. 시정이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중략)…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히고 다른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 경우, 또는 어떤 사람이 살해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 살해당했을 경우, 가해와 피해는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손실이 균등해지도록 해야 한다.

☞ Zola Guide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의 구분

종류	내용	
일반적(보편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을 준수함으로써 정치 공동체의 행복을 창출하고 지키는 것 *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미덕(탁월성)을 구현하는 것 	
특수적(부분적) 정의	일반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	
	(교환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의 교환 상황에서 적용됨 * 교환되는 재화의 가치만큼 =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
	분배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 지위, 명예, 재화 등 * 각자의 가치(공동체에 기여도)만큼 =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
시정적(교정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섭에 있어서 잘못된 것(타인에게 부당한 해나 이익을 끼침) * 부당한 만큼 =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 	

89.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

고도의 생산력 발전이 없이는 결핍이 일반화할 뿐이며, 그럼으로써 궁핍과 함께 필수품을 둘러싼 투쟁도 다시 시작되지 않을 수 없고, 일체의 해묵은 오물이 필연적으로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생산력의 발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독일 이데올로기

☞ Zola Guide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 사회는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 사회이다. 따라서 개인들은 능력에 따라 마음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산술적으로 1/N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90. 롤스, “정의론”

(1) 우리는 사회에서 맨 처음 주어진 출발선이 당연히 내 몫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내게 분배된 타고난 재능도 당연히 내 몫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중략)… 어렸을 때 좋은 가정과 사회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은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 차등원칙은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활용해 어떤 이익이 생기든 그것을 공유하자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누구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한다는 전제에서만 자신의 행운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것이다. …(중략)…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해, 그러한 우연을 불행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는 것이다.

(2) 사상 체계의 첫 번째 덕목이 진리인 것처럼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세련되고 간결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과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의 복지라는 명분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일부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3) 사회에는 조정, 효율, 안정 등의 기본적 문제들이 있다. 개인들이 갖는 인생 계획이 상호 융화됨으로써 그들의 생활이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계획들이 모두 타인의 합당한 기대에 과히 어긋나지 않게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계획의 실현은 효율적이면서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사회 협동 체제는 안정된 것이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호응을 받는 동시에 그 기본 규칙들은 기꺼이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반이 생길 경우에는 더 이상의 탈선을 예방하고 그 체제를 복구하려는 안정 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4) 사회에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진 상이한 기대를 한다. 이런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어떤 출발점은 다른 출발점보다 유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뿌리 깊은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천부적 자산(천부적 재능과 능력)은 사회적 여건과 불운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따라 계발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천부적 자산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따라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는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것을 공정한 기획의 균등이라 한다. 즉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5)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보다 큰 선으로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이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 때문에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개인이 지닌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재능에 따른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행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6) 절차적 정의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순수한 절차적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분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독립적 기준이 있으며, 동시에 공정한 분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도 있는 경우이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있으나 이런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경우이다. 즉 올바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적용되는 절차가 그 결과를 보장해 주지 못해서 그릇된 결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만 따르면 절차가 결과한 내용에 관계없이 그 결과를 공정하게 간주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노름에서 볼 수 있다. 몇 사람이 일련의 공정한 내기에 가담했다면 마지막 판이 끝난 후의 현금 분배는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하거나 적어도 불공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18년 9월 21일 수정함)

(7) [18 ebs 수완 재인용]

내가 수정하고 싶은 또 하나는 복지 국가라는 관념과 재산 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라는 관념을 더욱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념들은 서로 매우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생산적 자산들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다. 한 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배경적 제도들은 (효과적인) 경쟁 시장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면서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하며 따라서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에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써가 아니라, 말하자면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 관념은 단순히 우연적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이것은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이며,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8)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서 목적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장기간에 걸친 공정한 협력 체계로서 사회라는 관념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 제도들에서는 처음부터 일부 소수의 수중이 아니라, 사회에 충실히 협력하는 성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 일반의 수중에 생산적 자산들이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법률을 통해 자본과 자원의 소유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분산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제반 정치적 자유와 공정한 가치를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보장되는 공정한 기회 균등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차등의 원칙의 위력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칙이 복지 국가의 맥락이 아니라 반드시 재산 소유 민주주의(혹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체제 liberal socialist regime)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차등의 원칙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여러 세대 동안 협력하는 공정한 체계로 이해되는 사회를 위한 호혜성의 원칙 내지 상호성의 원칙인 것이다.

(9) 정치관으로서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비록 시민의 독립성과 인격의 완전성을 위한 개인 재산권은 포함하고 있지만)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 재산권이 자연권이라는 식의 주장은 전혀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소유-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자연권 역시 전혀 옹호하지 않는다. 그 대신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어떤 국가의 특수한 여건들이 제시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그에 비추어 합당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정의관을 제시한다.

91. [비상교육] 계약적 상황(원초적 입장)의 조건

1. 다른 사람의 이익에 상호 무관심
 2. 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달성됨(자원이 적당히 부족)
 3. 무지의 베일
 4. 경제학, 심리학 등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 인지함
 5. 개인은 모험을 싫어함
- ☞ Zola Guide 개인적으로 찍기를 싫어하지만 Zola가 찍는 킬러 내용(선지)들임.

92. [교사용 지도서] 롤스의 정의론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라 불리기도 하는 롤스의 정의론은 그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에 의해 특징지어질 수 있다.

그가 내세운 정의의 제1 원칙, 즉 평등한 자유(equal liberties)의 원칙은 사상, 양심, 언론, 집회의 자유, 보통 선거의 자유, 공직 및 개인 재산을 소지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보장하는 것에 우선점을 두고 있다.

정의의 제2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그것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되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둘째, 그것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다. 즉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줄 경우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서만 정당하다는 원칙이다.

정의의 제1 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고, 제2 원칙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정의의 두 원칙은 자유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제1 원칙 우선성 규칙, 차등의 원칙에 대한 기회 균등의 원칙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제2 우선성 규칙이 있다.

93.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1)

우리는 노동을 통해 어떤 것을 소유할 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한 그 소유물을 취득할 응분의 권한을 가진다(취득의 원칙).

우리는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자유로이 양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양도의 원칙).

취득과 양도 시 과오나 그릇된 절차에 의한 소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교정의 원칙).

(2)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과 같다. 한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한 분배는 이것이 다른 정의로운 분배로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발생했을 때 정의롭다. 한 분배 상태에서 다른 분배 상태로 이행하는 합법적인 수단은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

(3)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누구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행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받는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최소 국가는 옳을 뿐만 아니라 영감을 고취시킨다.

(4)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를 강탈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시간을 강탈하고 그에게 다양한 활동을 명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일 또는 보수가 없는 일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 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가를 직접 정하는 꼴이다. 이런 행위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들을 당신의 소유주로 만든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에게 넘기는 행위이다. 누구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행위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부자가 강요받는 꼴이다. 이는 그들의 소유물을 그들 마음대로 쓸 권리를 침해한다. (17 ebs 수완 재인용)

(5) 소유 권리론의 시점에서 볼 때 재분배는, 실제 개인들의 권리의 침해를 포함하므로,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부정의의 교정의 원리에 따라 생기는 재분배는 예외이다).

(6) 최소 국가는 극소 국가에, 조세 수입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명백히 재분배적인 프리드먼(Friedman)식의 보증서 제도가 덧붙여진 국가이다.

(7) 최소 국가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가는 합법적이지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 최소 국가는 유일의 옳은 국가 형태일 뿐 아니라 영감 고취적이다.

94. [교학사, 윤사] 노직

노직에 의하면, 최초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는 소유되지 않은 대상물에 자신의 노동을 가함으로써 가치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소유권이 발생함을 주장한다. 이때 타인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같은 품질의 좋은 것이 남겨질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최초의 소유자가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한다면 그 이후의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가 제한되어 타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이전(移轉)에서의 정의의 원리, 즉 개인 간의 자발적인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 발생한다. 개인의 사적 소유권은 그 최초의 획득과 그 이전 과정이 정의로 유효했다면 그 결과 상관없이 정당하다.

단, 최초의 소유와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제와 같은 부정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교정되어야 한다. 소유권의 정당성이 보장되는 근거는 소유물의 이전 과정이 정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교정의 원리는 부정의의 교정도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과거의 부정의한 사실을 교정할 때뿐이다. 만약 최초의 소유와 이전의 과정에서 부정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것은 부정의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직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재화를 재분배하는 복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부정의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무정부주의도 부정의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직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하는 최소 국가이다.

95. 롤스와 노직(14 ebs 수특)

롤스는 정의를 사회적 합의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며,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계약 당사자들은 결국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는 정의의 원칙을 산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롤스는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하며, 사회의 기본 구조를 조정해 우연한 차이가 행운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노직은 최소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국가는 부정한 계약의 감시, 거래자의 안전 보장 등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재화의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한다고 보고 국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분배 정의를 해치는 것으로 비판하였다.

결론적으로, 롤스가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를 통해 시민들의 평등한 삶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 노직은 소유권 보호를 통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삶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롤스가 사회의 빈곤층을 소외시키지 않는 정의의 원칙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본 반면, 노직은 '한 개인의 소유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존중하는 분배가 정당하다'고 전제하는 '권한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롤스와 노직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고 국가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3

사회 정의 - 교정 정의(사형제)

☞ Zola Guide 독해 및 개념이 사상가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사상이 공부하는 기출 제시문과 선지를 중심으로 해라!

사형제 논쟁 구도 관련 사상(가) 비교

1.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764년
[참고 문헌 : C. Beccaria, 한인섭 신역,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11)]
2. 루소, ‘사회계약론’, 1762년
[참고 문헌 : J. J. Rousseau, 이환 옮김,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3. 칸트, ‘윤리(도덕) 형이상학 정초’, 1785년
[참고 문헌 : I. Kant, 백종현 옮김, 『윤리형이상학』, (아카넷, 2012)]
4.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1789년
☞ Zola Guide 벤담은 베카리아 대타이므로 본 자료의 논쟁 구도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들어가는 글](한국경제, 2014년)

1999년 봄, 일본의 한 아파트에서 23세 새색시가 갓난쟁이 딸과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수도검침을 나왔다면서 괴청년이 들이닥쳤다. 그는 색시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강간하고 울던 아이마저 잔인하게 죽였다. 범인은 나흘 만에 체포됐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19세 미성년자라며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졸지에 사랑하는 아내와 핏덩이 딸을 잃은 신랑은 법정에서 ‘가해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나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형을 언도하라’고 절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범인 인권법은 있어도 피해자 권리법은 없는 현실을 하소연했다. 그 노력 끝에 피해자의 공판 참여법이 생겼고, 9년 만에 범인에게는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사형논쟁은 목숨을 다루는 문제여서 늘 조심스럽다.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개념의 사형 범죄가 30여개나 규정돼 있다. 구약 율법(토라)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명 이상이 사형됐다. **사형폐지론이 등장한 것은 18세기였는데, 이때 논쟁은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한 이탈리아 학자 베카리아는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범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며 반대론을 폈다.

그러나 칸트는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사형을 집행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루소도 “사형 남발에는 반대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살인자를 살해하는 데 동의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살인자가 되면 죽는 데 동의한 것이므로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Zola Guide 개인적으로 ‘내가 살인범이다’라는 영화 추천함. 보라는 것이 아니라(Zola도 안 봤음) 즐거이만 확인하면 됨.

96. 베카리아

☞ Zola Guide 사형제 논쟁에 불을 지핀 장본인이라 보면 됨. 예방론과 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형제를 비판하지 만, 여러 다른 이유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예방론(공리론)	계약론
<p>1. 인간의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 지속도이다. ... (중략)...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처형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겨나지 않는다. 이는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 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짐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를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목격자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비슷한 짓을 하면, 오랫동안 저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겠구나” 하고.</p> <p>2. 형벌이 정당화하려면, <u>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u>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p> <p>3. <u>형벌의 목적은 오직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타인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시키는 것이다.</u> 따라서 형벌 및 그 집행의 수단은, <u>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수형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u></p> <p>4. 한 형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범죄자가 형벌을 통해 받은 해악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정도로 충분하다. <u>그 정도를 넘어서면 모든 처벌은 불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폭압적인 것이다.</u>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고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고통을 반복 체험함을 통해서이다.</p>	<p>4.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도살할 수 있는 것인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확실히 아니다.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은 <u>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적 일반의사를 대표한다.*</u>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각 개인의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몫의 희생 속에 어떻게 모든 가치 중 최대한의 것인 생명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이 같은 점을 수궁할 수 있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 <u>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u></p> <p>☞ Zola Guide 공리론에 해당하기도 함. ‘<u>개인의 이익의 합=사회 이익</u>’이라는 의미임.</p>

97. [참고] 베카리아는 ‘모든’ 사형제도를 반대했는가? No!!!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그 국가가 한 시민의 존재의 파괴를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벌이는 전쟁인 것이다.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인도주의의 대의를 선취하는 셈이다.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이다. 다시 말해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부형태에 위험한 혁명을 야기할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경우이다.

☞ Zola Guide 교육과정 밖이니 신경고실 것! 제시문으로 출제되면 독해하면 그만임! 단, 베카리아의 다른 글과 섞여서 나올 때 베카리아가 아니더라도 단정지으면 곤란하니 참고해 둘 것!

98. [Zola 암기]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이수성·한인섭 공역, 길안사, 1995)

- ①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 ②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③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형벌도 그 본질상 부정의한 것이다. 즉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 ④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다.

[참고] <http://c.hani.co.kr/hantoma/95859>

〈범죄와 형벌〉은 형벌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최초의 간결하고도 체계적인 서술이다. 베카리아는 이 책에서 이미 알려져 있던 개념이나 사상들을 표현하고 있고, 그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키외의 생각을 상당 부분 인용하고 있지만, 이 저작은 형법적 사고에 있어서 커다란 진보를 보여주었다. 이 책의 논지는 정부정책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리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는 고문과 비밀재판절차의 사용, 하급법관의 변절과 부패, 잔인하고 과도한 형벌과 같은 당시의 야만적 관행을 비난했다. 또한 형벌제도는 안전과 질서를 적절히 유지하는 선에서 형벌을 부과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한계를 넘는 것은 법률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대체로 형사법은 형벌의 가혹성보다는 그 확실성 또는 타당성에서 효율성의 근거를 찾는다. 또한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베카리아는 최초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한 근대의 저술가이며, 따라서 이후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계속되어온 사형폐지운동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다.

35)[Zola] 베카리아는 연습해 두자! 아래 내용 중 베카리아의 주장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1개 이상임. 앞의 자료 베카리아를 참고할 것.)

- ①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 ②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③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형벌도 그 본질상 부정의한 것이다.
- ④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한다.
- ⑤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
- ⑥ 사형을 규정하는 법률은 스스로가 살인을 범하는 셈이다.
- ⑦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다.
- ⑧ 사회 조직은 구성원 모두의 총의로 움직인다.
- ⑨ 사형은 그 어떠한 권리에도 의거하지 않는다.

99.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Zola Guide 벤담은 득해와 개념으로 해결됨.

(1) 모든 법령이 지니고 있거나 지녀야 하는 일반적 목적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전체적 행복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그러한 행복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을, 달리 말하면 폐해를 없애고자 한다. 그렇지만 모든 처벌은 폐해이다. 모든 처벌은 그 자체로서 악이다. 공리성의 원리에 의할 때, 만일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벌의 직접적인 주목적은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위법자*의 행위이거나 그 밖의 타인들**의 행위이다. 처벌은, 위법자*의 의지에 대해 혹은 위법자의 신체적 힘에 대해 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의 행위를 통제한다. 전자의 경우 처벌은 교정의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일컬어지며, 후자의 경우에는 무력화라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일컬어진다. 처벌이 그 밖의 타인들**의 행위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들의 의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외의 다른 방식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처벌은 아무튼 본보기라는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일컬어진다.

☞ Zola Guide 특수 예방주의(*)와 일반 예방주의(**)

100. 루소

☞ Zola Guide 계약론적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본 개념(계약론)에 근거해서 베카리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득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론 이외의 다른 입장들이 섞여 있으니 조심하되 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베카리아와 루소는 다시 칸트와 만나기도 하니깐 잘 확인해 두자.

XX	계약론(+살짜 응보론)
그닥 내용 없음.	<p>1. 개인은 자기의 고유한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권리를 어떻게 주권자에게 이양할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반문한다. 이 질문이 답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은 질문이 잘못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u>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위험을 범할 권리가 있다. 화재를 피하려고 창문으로 몸을 내던지는 사람을 자살미수범이라 말한 일이 있었는가? 폭풍의 위험을 알면서도 승선하여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사망한 사람에게 자살죄가 적용된 예가 일찍이 있었는가?</u></p> <p>2. <u>사회협정*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원하는 사람은 그 수단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수단은 다소의 위험과 때로는 상당한 희생까지도 수반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도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은 법이 자기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위험에 대해 더 이상 알가알부할 수가 없으며 군주가 시민에게 “네가 죽는 것이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는 죽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계약조건하에서만 가능하였고 또 그의 생명은 이제 자연이 베푼 은혜만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조건부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이다.</u> ☞ Zola Guide *은 사회계약. 계약의 목적은 ‘생명 보존’이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생명 박탈(사형)은 정당화가능하다는 얘기.</p> <p>3. <u>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거의 같은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우리가 살인자가 되었을 때 달게 사형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u> 사람들은 이 계약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처분하기는커녕 오직 그것을 보호하는 것만을 생각한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들이 자기가 처형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 Zola Guide 뒤에 나오는 칸트는 ** 부분을 문제 삼는다.</p> <p>4. <u>한편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자는 누구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된다. 그는 조국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나아가서는 조국에 대해 전쟁을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존립과 그의 존립이 양립할 수 없으며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범법자가 처형당할 때는 시민으로서라기보다 차라리 적으로 간주된다. 이 처벌의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계약을 깨뜨렸고* 따라서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거이자 선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은 최소한 그의 거주지로 인해 국가의 구성원임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사회계약의 위반자로 국가로부터 추방되거나, 아니면 공공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적은 법률적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며 이 경우 전쟁의 권리는 피정복자를 죽일 수 있는 것이다.</u> ☞ Zola Guide 18-9쪽에 출제된 부분임. *응보론에 해당하는 부분임. 처벌은 계약을 파기(잘못, 범죄)에 대한 대가(응보)임.</p>

101. 칸트

☞ Zola Guide 공리론과 계약론을 까는 칸트의 핵심 명제는 ‘형벌은 정언명령’이다. 정언명령은 효과와 상관없이 타당하며(공리론 까기), 사람들의 동의 또는 의욕 여부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계약론 까기).

응보론 1 - 예방론(공리론) 까기 베카리아(벤담도) Cival!!!!	응보론 2 - 계약론 까기 루소/베카리아 Cival!!!!
<p>1. <u>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마침내 그러한 행위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분명 나쁜 일이지는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에 찬성하고, 비록 거기서 유익한 것이 생겨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옳은 것으로 여긴다.</u></p> <p>2. <u>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들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생득적인 인격성은, 설령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방호해준다. 그의 형벌에서 그 자신이나 동료시민들을 위한 몇몇 이익을 끌어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도 먼저 그가 형벌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u></p> <p>☞ Zola Guide 교화의 경우(특수 예방주의*)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지 않냐는 반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칸트는 교화의 목적이 고상하게 들리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인간으로 개조하려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즉, 범죄자의 교화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인간으로 만들려는 것은 인간을 단지 사회적 유용성을 위한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본다. 칸트의 얘기는 그러하다.</p> <p>☞ Zola Guide ** 부분을 독해력 부족한 banana들이 ‘<u>형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u>’로 해석하고 가르쳐서 오개념이 생기는 부분임.</p>	<p>3. <u>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무릇 누군가에게 그가 의욕하는 것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형벌은 아니며, 형벌받기를 의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말이다.</u></p> <p>...(중략)... 형법률을 구술하는 공동입법자로서 나는 신민으로서 그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는 없다. 무릇 그러한 자로서, 곧 범죄자로서 내가 입법에서 표를 가질 수는 없다. (입법자는 신성하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로서의 나에 대해 하나의 형법률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내 안의 순수한 법적으로 - 입법[법칙수립]하는 이성[예지적 인간]이며, 이 이성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로서, 따라서 하나의 다른 인격[현상적 인간]으로서의 나를 시민연합체 중의 여타의 모든 이와 함께 복종시키는 것이다.</p> <p>☞ Zola Guide 그냥 무시하셈. 교육과정 밖임</p> <p>4. 바꿔 말하자면, 국민(즉 국민 중의 각 개인)이 아니라, 법정(즉 공적 정의)이, 그러니까 범죄자와는 다른 자가 사형을 구술하는 것이며, <u>사회계약 안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u> 무릇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한다면, 이 자에게 형벌받을 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일도 위임되지 않을 수 없을 터이겠고,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겠다.</p> <p>☞ Zola Guide 사회계약에는 형벌 및 생명 처분에 대한 동의 여부가 포함되지 않음! 즉 형벌을 사회계약으로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잘못된 것임!</p>

* 베카리아/루소/칸트 표 자료는 <응용윤리학 - 사형제도의 윤리적 쟁점과 찬반논쟁 - 김남준(충북대학교 윤리교육과)>의 자료가 많이 도움 되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Zola는 표절하지 않습니다!!

102. [보충] 칸트가 말하는 형벌의 두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유죄 조건 :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하고, '어떤 다른' 이유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비례원칙, 동등성의 원칙 : 범법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의 죄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원칙은 사형제도를 불가피하게 시인하도록 이끈다.

103. [보충] 칸트, "윤리형이상학"

(1) 법관의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건 시민사회를 위해서건 어떤 다른 선(善)을 조장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일 수 없다. 도리어 그것은 언제나 범죄자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과하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형벌은 일종의 정언명령이다. 공리론이 형벌관념 속에 뱀처럼 기어들어와 형벌이 약속해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통해 이 정언명령을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마치 '전체 백성이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나으리라'라고 한 바리새인의 말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경계하고 방어할지어다! 왜냐하면 정의가 몰락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2) 시민사회가 그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하더라도(예컨대 한 섬에 사는 백성들이 그 섬을 해체하고 다른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결의한 경우처럼) 감옥에 남아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의 살인자만은 미리 처형하고 나와야 한다. 이로써 모든 사람은 자신의 범행이 어떤 값을 치루어야 할까를 경험하게 되고, 이 처형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흘린 죄가 전체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처형을 하지 않은 백성도 정의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에의 동참자들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Zola Guide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이런 저런 상황을 따지지 마라는 것임(형벌-정언명령-무조건적인 명령!). 성균관대 논술 제시문에 출제된 부분인데 그 당시 다수(?) 수험생들이 이 제시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독해하는데 실패하였음.

(3) 공적인 정의는 어떠한 종류의 처벌을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가? 그것은 분동을 사용하는 접시저울에서와 같은 등가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다른 국민의 한 사람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악한 행위를 했을 경우, 너는 너 자신에게도 같은 것을 행하는 셈이 된다. 만일 네가 그 사람을 모욕했다면, 너는 너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그에게 사기를 친다면, 너는 너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죽인다면, 너는 너 자신을 죽이게 된다. 법정에서는 오직 응보의 권리만이 처벌의 질과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권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준은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동요하기 마련이며, 또 그 경우에 연루된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엄격한 정의의 판결에는 적합하지 않다.

(4) 그가 살인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生)과 사(死)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을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104. [보충, 15 ebs 수완] 형사적 정의 제도(형벌, 사형제)에 대한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입장

공리주의자들이 처벌을 악으로 보는 견해를 갖기는 하나 처벌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처벌을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이다. 그들은 처벌이 가져올 나쁜 결과보다 처벌을 함으로써 생겨날 좋은 결과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결과란 무엇인가? 공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주장은 형사상의 정의 제도가 갖는 예방의 효과가 바로 좋은 결과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중략)… 공리주의적 체계에 따르면 다른 대안들이 바람직한 예방의 수준에 이르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만 사형 제도가 이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형사적 정의 제도에 대한 의무론적인 접근 방식의 배후에 깔린 기본적인 생각은 그 제도가 응보적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제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들에게 해악을 가한 자들에게 그들이 유발한 해악과 동일한 정도로 처벌을 해야 한다. …(중략)… 응보적 정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본적으로 그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뒤따르는 결과에 상관없이 본래적 선이라는 것이다. …(중략)… 응보적 관점에서 볼 때 살인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과 동일한 정도만큼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사형보다 덜 가혹한 형벌이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까닭은 오직 사형만이 응보적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유일한 방도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바루흐 브로디, “응용 윤리학”

☞ 형사적 처벌에 관해 공리주의자들은 그 처벌이 가져올 유용성에 비추어 처벌의 유무와 강도를 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형 제도는 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그 존폐가 논의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의무론자들은 형사적 처벌을 응보의 수단으로 파악한다. 해악을 끼친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사형 제도는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정의의 실현 수단이 된다.

105. [보충, 비상교육] 헤겔의 응보주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칸트의 동해 보복적 응보주의를 비판하면서, 같은 가치의 응보라면 충분하다는 등가치 응보주의를 주장하였다.

[교과서 본문] (칸트에 따르면) 형벌의 본질은 응보에 있으며, 응보주의에 바탕을 두 사형은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은 자신의 자율적인 행위 즉 스스로 저지른 살인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의 입장과 달리 응보주의 입장에서 응보가 반드시 동해 보복일 필요는 없다. 살인 등의 흉악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그에 비례하는 응분의 처벌이면 충분하다.

☞ Zola Guide 일단 기출 선지(18-6평-19번-〈보기〉-)에 ‘동해 보복’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조심하자!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공리론 칸트(응보론) 공리론 → 결국 이 문장은 미친 문장임.

36)[Zola 독해] 다음은 모두 공리주의(벤담과 베카리아) 선지이다. 문장을 독해해서(지식보다는 독해!) OX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 (1) 처벌의 해악이 처벌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16-10교-15번-㉔, 18-6평-19번-ㄷ)
- (2)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17-9평-14번-ㄱ)
- (3) 형벌의 해악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17-3교-4번-㉑)
- (4) 처벌이 가져올 나쁜 결과보다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가 더 클 경우 처벌은 필요하다.(14-3교-16번-제시문(나))

14

생명윤리 - 안락사·장기이식·인간복제

☞ Zola Guide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강의 잘 들으셈. 놓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임.

① 안락사

1. 의미 :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2. 종류

(1) 환자의 의사에 따라 : 자발적 -비자발적-반자발적

자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 •환자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인가? 환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살과 구분할 수 있는가?
비자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상황 •주변 사람(가족)이 다른 사람(환자)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반자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 •대체로 살인으로 보기 때문에 윤리적 논의에서 제외함

(2) 죽음을 앞당기는 방법에 따라 : 소극적-적극적

적극적	약물 주입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로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킴
소극적	연명 치료 행위를 중단하여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함

② 장기 이식

1. 종류와 문제점

자가 이식	의미	자기 자신의 조직이나 장기의 위치를 옮기는 것
	문제점	치료 영역이 한정되어 있음
동계 이식	의미	유전자가 동일한 사람의 것을 옮기는 것
	문제점	관련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음
동종 이식	의미	다른 사람의 것을 옮기는 것
	문제점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비해 제공 가능한 장기가 부족함
이종 이식	의미	종(種)을 달리하는 동물로부터 옮기는 것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성의 문제 : 동물로부터 질병 전염 가능 •정체성 혼란의 문제 : 이식받은 사람의 정체성 혼란 가능 •동물의 권리와 복지의 문제 : 동물도 고통 없이 살 권리가 있음 •생태계 보존 문제 : 특정 동물의 대량 생산 행위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음

③ 인간 복제

1. 배아 복제 : 치료용 복제 - 배아줄기 세포를 얻기 위한 복제

찬성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아는 아직 완전한 인간이 아님 • 인간의 기관 조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음
반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아도 초기의 인간 생명임 • 배아 복제 과정에서 난자 사용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해칠 수 있음

2. 개체 복제 : 생식용 복제 - 복제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게 하는 것

찬성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임 부부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음 • 생식의 자유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기를 낳을 권리가 있음 • 우생학적 개량 가능 • 죽은 이를 대체할 수 있음
반대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임 • 인간의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에 어긋남 • 인간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훼손시킴 • 부부 공동의 아기가 아님(아기는 부모를 동시에 가질 권리를 박탈당함) • 가족 관계의 혼란이 생길 수 있음

15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권리

☞ Zola Guide 대부분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다. 수능보다는 논구술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권리에 대한 사상가 특히 요나스와 새로 추가된 롤스 입장은 잘 확인해 두길 바란다. 두 사상가 모두 교과서의 여기저기에 등장하므로 단원 통합형 혹은 다른 사상가와 엮어서 출제될 수도 있다.

106. [천재교육] 미래 세대

미래 세대란 현세대의 생물학적 자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는 세대를 포함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 문제는 과학 기술 시대에 인간이 지구 상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터전인 지구 자체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현세대가 지하자원을 모조리 소비하거나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한다면, 지하자원의 사용이나 건강한 생태계에 대하여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와 이에 따른 기후 변화를 유발하여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107. [비상교육] 미래 세대 권리

(1) 공리주의

벤담과 같은 고전적 공리주의자들에 따르면, 불실확실하고 멀리 있는 쾌락보다는 확실하고 가까이 있는 쾌락이 보다 중요하다. 이는 곧 먼 미래는 불확실하고 미래 세대보다 현재 세대를 더 중요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세대가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 Zola Guide (1) 벤담이 주장한 것이 아님. 벤담의 논리를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임.

(2)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이 모두 미래 세대의 권리를 부정하였다고 단정하면 안 됨. 공리주의 입장에서 미래 세대의 권리를 옹호하는 학자들도 있음.

(2) 의무론

칸트와 같은 의무론자는 합리적 존재인 인간이 결코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구 상에 거주할 합리적인 미래 세대도 우리와 같은 현세대가 누리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삶을 영위할 도덕적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그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롤스

① [비상교육]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롤스는 '원초적' 상태'와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세대 간의 윤리, 즉 미래 사람들의 권리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우리가 지구 환경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사회 계약의 원초적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세대에 속하는지를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해 누구나가 따를 수 있는 합의 가능한 도덕 원리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든 세대가 동등한 권리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리가 그것이다. 이처럼 정의 윤리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미래 세대의 권리의 정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Zola Guide 벤담과 칸트는 공리주의와 의무론 개념을 각각 '활용'해서 풀이 가능. 롤스는 '원초적 상태'와 '무지의 베일'을 배워야 이해 가능함(대단원 4단원에서 다룸).

② [교학사]

롤스는 세대 간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각 세대는 문화와 문명의 장점들을 보존해야 한다. 둘째, 이미 세워진 정의로운 제도들을 해침이 없이 유지해야 한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원 고갈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각 시기 동안에 적절한 양의 실질적인 자원을 축적해야 한다.

☞ Zola Guide 이 제시문은 롤스라는 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함. 제시문만 보서는 ‘롤스’라는 사상가를 떠올릴만한 단서가 없음.

108. [비상교육] 미래 세대를 위해 현세대는 발전 속도를 늦추어야 하는가?

(가) 민법에서는 미래에 발생하고 예측이 가능해서 예방될 수 있는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미래 세대의 에너지 사용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래 세대가 새로운 대체 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자본 투자를 빚지고 있는 셈이다.

책임의 윤리를 강조한 요나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첫째, 미래 윤리의 관점에서의 책임은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 앞으로 전개될 가능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다. 둘째, 책임은 일반적인 도덕적 배려와 인간의 존재라는 차원, 즉 존재적 책임으로 확장해야 한다. 셋째,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제1의 당위적 요청이므로 우리는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인간은 책임을 지는 유일한 존재이다.

(나) 미래에 어떠한 인간이 존재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논할 수 있는가? 미래 세대의 욕망과 필요, 혹은 이익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또한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계약에서 나오는 것인데, 먼 세대는 이러한 사회 계약의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애초부터 현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는 계약이 불가능하며, 현세대는 미래 세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 아울러 권리와 책임은 도덕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 도덕 공동체는 최소한 공통된 도덕 개념을 갖고 상호 간의 도덕적 관계를 승인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우리의 책임과 애정은 가까운 미래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도덕적 관계를 승인하지 않는 먼 미래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

109. [참고] 환경 윤리의 두 윤리 - 우주선 윤리와 구명선 윤리

(1) 우주선 윤리(동국대 논술 재인용, 비상교육 교과서, 피터 싱어)

'우주선 윤리(spaceship ethics)'에서는 지구가 무한한 우주공간을 여행하는 우주선에 비유된다. 인간은 이 우주선의 승객인 동시에 승무원이다. 지구 우주선은 자원과 물자가 한정돼 있고 이들을 무한정 탑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구 우주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내부 자원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신 가능한 한 태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와 같이 외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적정한 수용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경제·산업이 지금보다 제한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금과는 다른 유형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주선 윤리'는 자연 전체와 인간의 공존과 조화를 모색하고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는 인간이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명선 윤리(lifeboat ethics)'와는 다르다. 유엔환경개발회의가 1992년 6월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한 '지구헌장'의 핵심 개념은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인데, 우주선 윤리는 세계가 실천적인 방안으로 합의한 이 개념과 일치한다.

(2) 구명선의 윤리

두 척의 구명선이 바다 한 가운데에 떠 있으며, 그 중 한 척에는 적절한 인원이 승선해 있고 물자와 식량 또한 풍부하게 탑재되어 있는 반면, 정원을 초과한 나머지 한 척은 부족한 물자와 식량으로 혼란과 곤란을 겪고 있다.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명선의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내려 적절한 인원과 물자와 식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구명선으로 헤엄쳐 가서 태워 줄 것을 간청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이 구명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구조해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간청을 외면할 것인지를 여부가 문제로 떠오른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들의 간청을 외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가 바로 구명선 윤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나라의 토지와 자원이 제한되어 있듯이 구명선의 수용 능력도 제한되어 있다. 가난한 구명선의 사람들을 모두 태워 준다면 부유한 구명선도 침몰하게 된다. 즉 완전한 정의의 실현이 파국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유한 구명선에 타고 있는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고 구명선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두 척의 구명선이 모두 침몰하기보다는 부유한 구명선에 타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살아남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가난한 구명선의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가난한 구명선도 그 자체로 유지되도록 스스로 조정되면서 자력갱생되는 것이다.

구명선 윤리는 지구 전체가 개체보다 중요하며, 전체를 위해서 인간도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간은 자연에 대해 지배적이고 우월적 존재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전체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것이 철저하게 전체론적 환경 윤리에 입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명선 윤리는 전체론적 입장에 따라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현 수준에서 인구, 경제, 산업에 대한 조절과 역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구명선 윤리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다. 현 수준에서 인구, 경제, 산업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대국에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이지만 가난한 나라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후진국을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강자의 논리이며 강대국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자연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된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37) Zola Guide 우주선 윤리와 구명선 윤리가 환경 정책에 시사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16

예술관

☞ Zola Guide 칸트 예술관 확인해 둘 것.

110. 칸트, “판단력 비판”

(1) 우리는 가을철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판단하는데, 이때 우리 내면은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한편, 도덕은 자유가 전제될 때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의 자유는 느끼는 자유가 아니라 사고를 통해 상정된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적 체험을 통한 자유와 도덕의 전제인 자유는 서로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있다(무관심성).”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8)☞ Zola Guide 제시문 (1)에 근거하여 예술과 윤리를 비교하시오.

	예술	윤리
공통점		
차이점 (대응)		

(2)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있어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되고 고양된 고귀함을 느끼며, 그들의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 [16 ebs 수특 해설] 칸트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미적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상징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와 도덕적 행위를 할 때, 감각적 즐거움을 넘어서는 고양된 감정을 지니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아름다움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도덕과 통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름다움(미)이 도덕성(선)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자연의 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그가 앞서 이미 윤리적으로 좋은[선한]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을 충분히 기초 닦은 한에서만, 자연의 미적인 것에 대하여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미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이는 적어도 선한 도덕적 마음씨의 소질이 있다고 추정할 이유가 있다. -백종현, “칸트와 헤겔의 철학” 재인용

17

종교관

☞ Zola Guide 엘리아데의 성현 정리해 둘 것. 나머지는 독해!

111. [미래엔] 종교에 대한 다른 해석들

(1) 뒤르켐

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 사회에는 개별적인 구성원을 초월하여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위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성이 부족한 사회적 권위는 비판받거나 흔들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회는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초월자를 필요로 한다. 신과 종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2) 마르크스

사회 제도, 경제 제도에 의해서 절대 다수의 사람이 소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행하며, 이런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가 만들어졌다. 종교가 고통을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종교가 이 세계보다 더 행복한 세계가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죽어서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종교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커녕 인간을 수동적, 비현실적, 도피적으로 만듦으로써 실제로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준다.

39)☞ Zola Guide 종교에 대한 두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112. 엘리아데, '성현'(聖顯, 성의 드러남)

(1) [13 ebs 수특]

삶 자체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기에 종교라는 독특한 현상이 인간의 삶 안에서 묘사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삶 자체에 대한 서술 범주'를 새롭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무를 나무로' 승인하면서도 그것이 '나무이되 나무이지 않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경험을 서술할 수 있는 범주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의 나무를 우리가 늘 겪는 나무, 곧 일상성의 범주에 드는 나무라고 한다면 뒤의 나무는 독특한 경험에서만 드러나는 나무, 곧 비일상성의 범주에 드는 나무이다. 전자는 '속(俗:profane)'의 범주이며 후자를 '성(聖):sacred'의 범주이다. 인간의 삶이 드러나는 현상을, 그 표상이 어떤 것이든, 그 두 범주로 재구성된다.

☞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성스러움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중시하고 그것을 객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현실 생활과 단절된 비윤리적이고 독단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종교 생활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종교학자 엘리아데(Eliade, M.)는 '성현(聖顯)'이라는 개념을 통해 '세속적 휴머니즘'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공존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 이는 초월적이고 성스러운 경험을 가지되, 현실 생활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오늘날 종교인들의 가슴 속에 새겨야 할 교훈이라 하겠다.

[참고]16 ebs 수완 해설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인간을 종교적인 존재로 이해한다. 그는 자신이 비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마저도 일상 속에서 성스러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라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일상 속에서 성스러움과 만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성과 속이 분리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聖顯)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2) [천재교육]

종교적 인간은 그가 처해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한 간에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며, 그럼으로써 이 세계를 성(聖)스럽게 하며, 또 그것을 실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절대적 실재, 거룩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더 나아가 그는 생명이 거룩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신들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했고 문화 영웅들이 천지 창조를 완성했는데 이 모든 신적(神的)·반신적(半神的) 업적의 역사는 신화들 속에 보존되어 있다. 그런 거룩한 역사를 재연함으로써 인간은 그 자신을 신들 가까이에 놓게 되는 것이다.

세계 속에서의 이 같은 존재 양식과 비종교적 인간의 생존을 분리하는 모든 요소를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다. 첫째로,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을 거절하며, 심지어는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특히, 근대의 비종교적 인간은 그 자신을 오로지 역사의 주체와 역군으로만 간주하며, 초월을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달리 말하면, 그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간 조건의 바깥에 있는 인류를 위한 어떤 모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은 그 자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화하는 정도에 비례해서만 그 자신을 완전하게 만든다. 거룩한 것은 그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며, 좋은 삶든 간에 종교적 산물이다. 그를 형성하는 일은 그의 조상이 받아들인 상황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세속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행동의 어떤 흔적을, 비록 종교적 의미를 배제한 상태로나마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세속적 인간이 무슨 행동을 하든, 종교적 인간의 계승자이다. 인간은 과거의 산물이므로 자신의 과거를 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종교적 인간의 대다수는,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인간 대다수는 여전히 종교 비슷한 것과 타락된 신화를 갖고 있다. 세속적 인간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며, 그는 그 자신의 역사를, 즉 오늘날의 그를 형성한 종교적 선조의 행동을 지워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의 실존의 큰 부분이 그의 존재의 깊은 곳, '무의식'이라 불리는 영역에서 그에게로 오는 충동들로 키워진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점은 더욱더 확실해진다.

☞ Zola Guide 엘리야데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이다. 비종교적 인간도 비록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할 때나 새 집에서 살게 될 때에 수반되는 축제 같은 것은 비록 세속화되기는 했지만 갱신의 의미를 드러내는 의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혼, 아기의 탄생, 취임, 승진 등에 따르는 잔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0) [Zola Quiz] 엘리야데를 기독교 사상가로 착각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제시문의 첫째 단락에서 엘리야데의 글이 기독교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2음절의 단어를 찾으시오?

18

윤리 문제의 탐구와 실천(토론과 도덕적 추론)

☞ Zola Guide 도덕 추론에 대한 지식형 문제는 아직 출제된 적이 없다. 주의해 둘 필요는 있다.

113. 도덕적 추론 확인하기

☞ Zola Guide 1 논리적 사고(3단 논법)

원리 1. 문장 형식 = 주어 + 서술어

원리 2. 논증 요소 TRC(①②③)

원리 3. T는 주어(시작), C는 서술어(끝)

- 3단 논법 = 3요소 + 3문장
- 3요소 = T R C
 ① ② ③
- 문장 = 주어 + 서술어

☞ Zola Guide 2 비판 · 반박하기

비판의 정확한 의미는 결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논거(논리적 이유와 사실적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비판을 할 때에는 결론(TC) 뿐만 아니라 이유(R)와 근거(E)의 옳고 그름을 확인해야 한다.

비판의 가장 기본은 반박(반론)이다. 그리고 반박의 기본 원리는 간단하다. 대상이 되는 문장의 서술어를 부정하면 된다. 주장에 논리적 이유가 있고, 사실적 근거가 있듯이 반박에도 논리적 반박이 있고, 사실적 반박이 있다. 사실적 반박을 흔히 반례를 든다고 한다.

아래 표는 주장의 형식과 비판의 형식의 예이다.

역할	주장의 형식	비판의 형식
결론	T는 C이다.	T는 C가 아니다.
소전제	T는 R이기 때문이다.	T는 R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제	R은 C이기 때문이다.	R은 C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례	구체적으로 이런 예가 있다.	실제로 이런 반대되는 예가 있다.

그런데 비판을 할 때에는 형식을 지켜야 하지만, 형식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T는 R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T가 R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가능해진다.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보다 자세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zola 연습

출처 : 교과서, 평가원, 참고서, 논술 문제

※ 빈 칸을 완성하십시오.

1. 결론이 제시된 경우 1

도덕 원리(대전제) :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사실 판단(소전제) : _____

도덕 판단(결론) : 내가 나의 몸을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2. 결론이 제시된 경우 2

도덕 원리(대전제) : _____

사실 판단(소전제) : 임신 중절은 여성의 선택 사항이다.

도덕 판단(결론) : 임신 중절은 존중되어야 한다.

3. 결론이 없는 경우

도덕 원리(대전제) :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사실 판단(소전제) :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도덕 판단(결론) : _____

zola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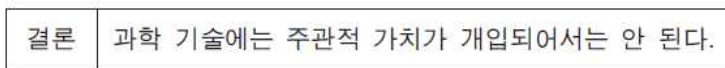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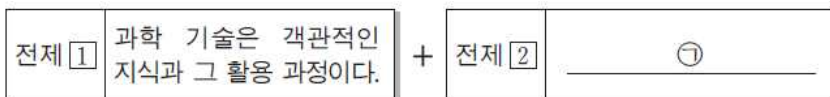
41)다음의 빈 칸을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도덕 원리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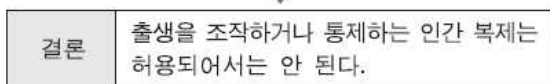
사실 판단 : 맑은 구역을 청소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도덕 판단 : 맑은 구역을 청소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42)[17-6 활용] 전제 ②에 들어갈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43)[17-9 활용] 전제 ②에 들어갈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44)[15-수능]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체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너의 주장을 삼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

대전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전제: ㉠

결 론: 인체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인체 실험의 부정적 결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 상실이 초래된다.
- ②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인체 실험은 인격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동물 실험 결과만으로 신약 후보 물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이다.
- ⑤ 인간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45)[15-9]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소전제 ㉠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아.

너의 주장을 삼단 논법으로 정리하면 칠판의 내용과 같겠군.

대전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전제: ㉠

결 론: 인간 배아 복제 실험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① 인간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② 출생하기 이전의 어떤 존재도 인간으로 볼 수 없다.
- ③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
- ④ 인간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인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 ⑤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에 속하다.

[도덕 추론 과정]

(1) 의미 :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근거로 구체적 상황에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것

(2) 과정

구분		사형 제도 찬성	사형 제도 반대
대전제	도덕 원리 (보편적 가치)	범죄자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은 정당하다.	인간 존재를 죽이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소전제	사실 판단 (참, 거짓을 가려내는 판단)	사형은 범죄자가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이다.	사형은 인간 존재를 죽이는 행위이다.
-----	---------------------------	--------------------------	----------------------



결론	도덕 판단 (개별적 가치)	사형은 정당하다.	사형은 정당하지 않다.
----	-------------------	-----------	--------------

(3) 주의점

- 두 개 이상의 사실 근거나 도덕 원리가 하나의 도덕 판단(결론)을 지지할 수도 있음
- 도덕 원리에 따라 서로 정반대의 도덕 판단(결론)이 정당화될 수도 있음

[도덕 원리 검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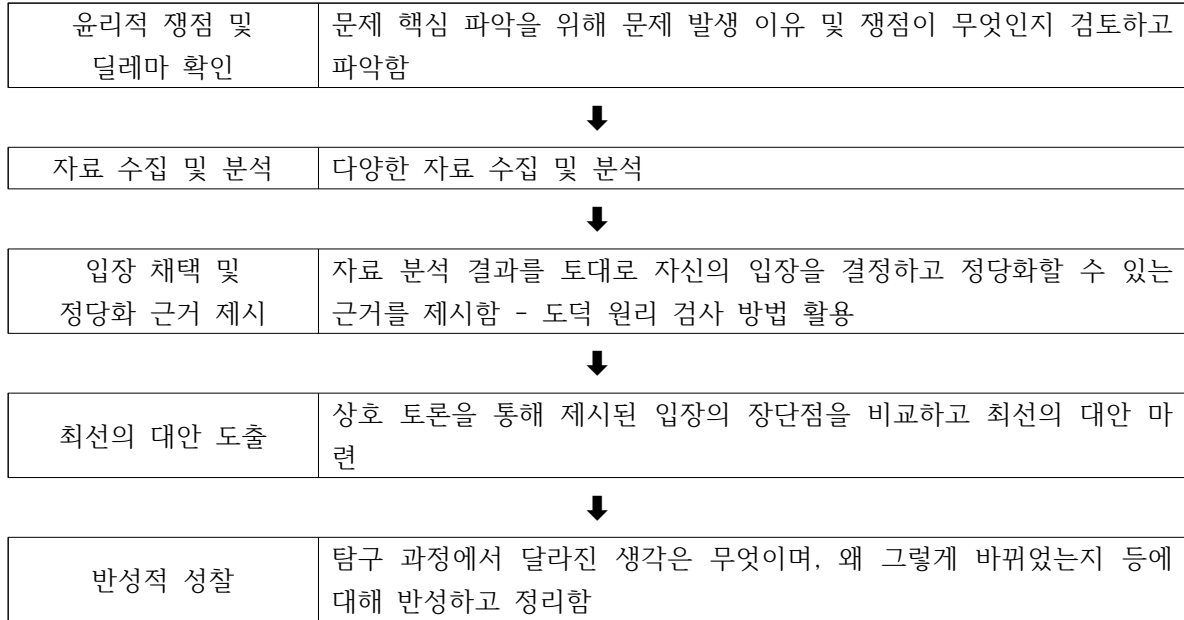
반증 사례 검사	상대방이 제시한 원리가 들어 맞지 않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는 방법
역할 교환 검사	자신이 주장한 도덕 원리를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에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
보편화 결과 검사	문제가 되는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이 채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하여 그 원리가 타당한지를 평가하는 방법
포섭 검사	이미 제시된 원리가 도전을 받은 경우 상위의 원리에 포함시켜 정당화하는 방법

☞ Zola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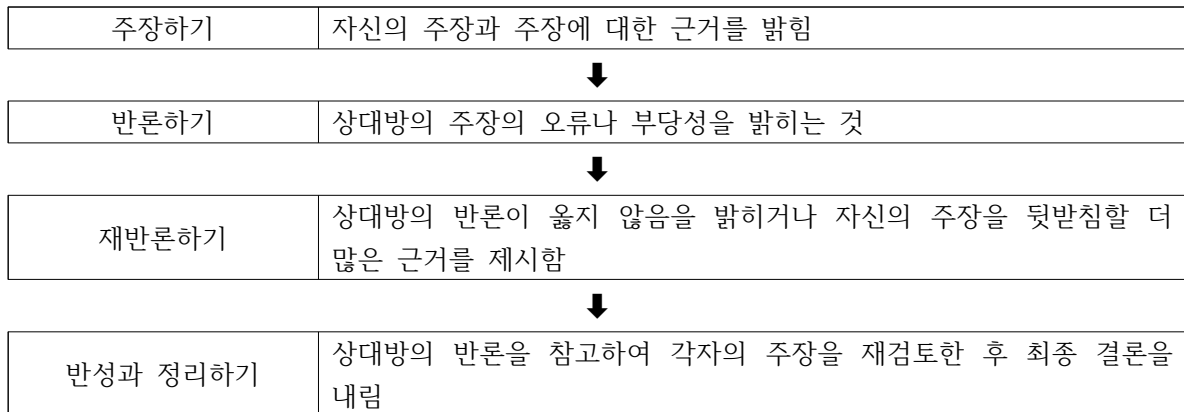
Q. 이런 것도 외워야 해요?

A. 문제가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걸 안 외워서 그 문제를 틀리게 될까?

[윤리적 탐구의 과정]



[토론 과정]



zola amazing 답

- 1) 가, 나. ☞ Zola Guide 자연법-이성-운명(필연)-순응이 핵심임. 다. 자연법 윤리는 '순응'을 강조함. '개혁' 아님!!!
- 2) 나, 다, 르
- 3) 정
- 4) ①. ☞ Zola Guide 선지 ② 오답률 17%(생윤이면 오답률 더 높을 것임). '의무에 맞는' 행위라도 개인의 이기심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이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아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다.
- 5) ☞ Zola Guide 답은 유가임. 많은 분들이 이 제시문의 '음양오행'을 보고 도가로 파악했음. 고난도 문제들은 단어가 아닌 문장을 봐야 한다. 유가니까 '하늘이' 음양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능력(권능)이 있는 존재이다. 지식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 음양오행의 원리(혹은 기 이론)는 유가와 도가 모두 인정하는 중국의 전통 사상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와 마찬가지로 유가도 죽음을 기의 흐름으로 설명한다. 다만, 죽음을 기의 흐름(자연적 현상)으로 '만' 파악하면 도가이고, 기의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슬퍼 '해야' 할 일(애도해야 할 일)로 본다면 유가이다. 자연을 자연으로만 파악하면 도가, 자연 속에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까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유가이다.
- 6) 자연(기)의 흐름으로 봄
- 7) 살아 있을 때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이 많음
- 8) 삶과 죽음이 차별없음, 순환의 과정
- 9) (순서대로) 에피쿠로스, 도가, 에피쿠로스, 도가
- 10) 답 ③, ⑤ ☞ Zola Guide 발문(문두)을 보라! '다음 글의 효'에 대한 설명이다. 여러분 머릿 속에 있는 지식인 효가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효에 대해 고르라는 문제이다. 지식으로 따지면 선지 모두는 옳은 답이다.
- 11) 간단 비교

	(가) 독해+지식	(나) 독해로만
공통점	남녀 사랑 // 부부 평등 // 자녀 출산 // 국가 공동체 윤리와 관련된	
차이점	가족 윤리 = 국가 공동체 윤리	가족 윤리 ≠ 국가 공동체 윤리

- 12) [옳은 내용] ①, ③, ⑩
- 13) 1, 2, 3, 5, 7, 8, 9, 11, 12, 16, 17, 20, 21
- 14) 나, 플라톤, 14-9 제시문
- 15) 없음. 마르쿠스, 14 제시문
- 16) 모두, 플라톤, 14 제시문
- 17) 가, 다, 르, 15-9 제시문
- 18) 모두!! 플라톤임. 위의 문제와 같이 제시됨.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독해로 '정답'은 찾을 수 있었음.
- 19) 가, 다. 위 문제와 같이 출제됨.
- 20) 다. 마르쿠스! 15-9.
- 21) 가. 마르쿠스. 16 수능
- 22) 가, 나, 다. 마르쿠스. 18-6 제시문
- 23) 없음. 칼뱅. 17-6 제시문
- 24) 가, 다. 18-6 제시문
- 25) 가, 나. 맹자. 18-수능.
- 26) 모두!! 순자. 16-9. 단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으로 지식이 필요없는 문제였음.
- 27) 나. 공자. 17-6 제시문
- 28) 가, 나, 순자. 15-6 제시문
- 29) 나, 다, 르. 제시문은 순자. 15 수능. 단,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가'를 확실하게 독해할 수 있음
- 30) (가)의 견해는 도구론적 입장으로 민족을 근대화에 따른 인위적 산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나)와 (다)는 원초론적 입장으로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한다.
- 31) [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가뭄이나 홍수, 그밖의 자연재해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식량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기근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가 이루어지고 언젠든 야당과 자유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근 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끔 원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을 하면 됨.
- ☞ Zola Guide 해외 원조 방법에 대해서는 논쟁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며, 개념형으로도 출제가 가능하다. 적어도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알아두자. 제시문은 교과서에 언급된 룰스의 입장과 상통한다.
- 32) 갑-가, 나, 을-가, 나 ☞ Zola Guide 갑과 을 모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임. '을'을 요나스로 착각하는 Banana들이 많음! 사상이 들이대지 말고 개념(인간 중심주의)과 독해로 풀림.
- 33) ☞ Zola Guide 기계론-대상을 물질로 봄. 인간 기계론은 인간을 물질로 파악한다는 이야기임.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측면(영혼이나 내면, 감정)은 어떻게 될까? 결국 기계론은 대상이 갖고 있는 정신적 측면을 간과한다는 것이 핵심임.
- 34) 답은 모두 모른다임. 특정 사상가의 입장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모두 모름. Zola라는 일개 강사에 휘둘리지 말고 니가 알고 있는 대로 '당당하게' 대답해라!!!!
- 35) ⑤ 빼고 모두. ⑤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가 아니라 '일시적'이다. 혹은 종신형보다 효과가 '적다.' ⑧은 9평 제시문에 나온 것임. ⑧이 곧 ①임. ②를 '죄형 법정주의'라고 함. 중요 개념임.

36) 답 (1) O, (2) O, (3) O, (4) O

(1) 처벌의 해악이 처벌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사형 1명 살인 범죄 2명 방지]이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함.

[사형 2명 살인 범죄 1명 방지]이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2)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이 위법 행위의 이득보다 커야 한다.

[고통 정도 10 과락 정도 50]이면 범죄를 저지르겠지. 예방효과 없음.

[고통 정도 10 과락 정도 5]이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지. 예방효과 있음.

(3) 형벌의 해악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

[범죄자의 고통]이므로 (2)와 같은 내용임.

(4) 처벌이 가져올 나쁜 결과보다 처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가 더 클 경우 처벌은 필요하다.

[사형 1명 살인 범죄 2명 방지]이면 공리의 원칙에 부합함. 즉 (1)과 같은 문장임.

37) 현재의 경제·산업에 제한이 필요함. 자연 보호가 필요함. 지구 자원은 유한함.

38) Zola Guide 간단한 비교표는 다음과 같음. 참고하셈.

	예술	윤리
공통점	자유와 관련됨 이기적 욕구에서 벗어남(무관심성)	
차이점 (대응)	내면 느낌 직접적 인식 미적 체험 후(경험 후)	(외면), 행위 사고 간접적 인식 전제(경험 이전, 선험적)

39) 공통점 : 사회적 산물, 차이점 : 뒤르켐은 순기능을 강조하나, 마르크스는 순기능도 결국에는 역기능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함.

40) 신·들.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음. 즉 신이 하나임.

4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옳지 않다.

42) 객관적인 지식과 그 활용 과정은(과정에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43) 출생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인간 복제는 인간만이 갖는 존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44) 2. 90%

45) 2. 82%

